

# 희망 강국

당신의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들이 모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6 Spring  
창간호

Special Theme  
종자산

Finance Class  
2016년 2분기 투자전략

Issue Class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전략





**Premium Service**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Portfolio Service**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문상품  
리포팅 서비스

**Consulting Service**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오직 당신을 위해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과감하게-  
위기에선 섬세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WIN CLASS의  
승리투자공식이다.

승리를 향한  
자산관리 어프로치

# WIN CLASS



## IBK 기업은행 WIN CLASS의 자산관리 승리공식

- |                           |  |  |
|---------------------------|--|--|
| <b>Consulting Service</b> |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자산관리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세무 컨설팅 서비스, 금융 컨설팅 서비스    |
| <b>Portfolio Service</b>  | 고객님의 자산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 • IBK금융그룹 복합금융 서비스, WM전문상품, 리포팅 서비스      |
| <b>Premium Service</b>    |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문화 예술 세미나, 문화 공연 행사, 공항 리무진 의전, 경조사 지원 |

# WIN CLASS

2016 Spring 창간호



IBK기업은행의 <머니솔루션>이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 매거진 <WIN CLASS>로 새롭게 바뀝니다.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Tel. 02-729-6423, 6419  
기획·제작·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INANCE CLASS**

- 6 **바라보는 2/4분기**  
2016년 2분기 투자전략
- 10 **금융시장 전망**  
[환율] 미국 달러 바로보기
- 13 **펀드상품(2016년 2분기)**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ISSUE CLASS**

- 16 **쉽게 읽는 경제**  
원유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20 **금융포커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전략
- 22 **① 종자산 마련의 기준과 의미**
- 25 **② 종자산 모으는 기술**
- 28 **③ 종자산 관리 시뮬레이션**

**SPECIAL THEME**  
종자산

**SOLUTION CLASS**

- 32 **글로벌 리포트**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금융 포트폴리오
- 36 **메가트렌드**  
이제, 은행에서도 일임형ISA를 만날 수 있다
- 38 **노후설계 재테크**  
40대 은퇴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
- 40 **투자전망**  
불확실성 커진 국내 증시, 헬스케어로 care하라

**MEMBERSHIP**

- 46 **PB센터 탐방**  
기업은행 PB센터 제1호점 강남WM센터
- 52 **재테크 레이더**  
미술품 감상과 투자
- 56 **문화예술 엿보기**  
한국화랑협회 <화랑미술제>
- 58 **문화예술여행**  
이탈리아 마르케(Marche)
- 62 **알뜰생활백서**  
알뜰한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활용법'
- 64 **건강으로 가는 길**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불면증 극복법
- 66 **경제 인사이트**  
신(新)소비 전략, 플랜 Z

# Finance Class

재테크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최신 분석 자료와 금융·시장·경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6 **바라보는 2/4분기** 불확실한 투자환경, 예측 가능한 투자
- 10 **금융시장 전망** 미국 달러 바로보기
- 13 **펀드상품**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 2016년 2분기 투자전략 불확실한 투자환경, 예측 가능한 투자

뚜렷하게 시장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는 한 가지 자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배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 문형수 선임연구원(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 불확실한 시장 환경

올해 글로벌 자산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중국 주식시장의 급락을 시작으로 선진국과 이머징을 구분할 것 없이 하락하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였던 원유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심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WTI 선물가격이 30\$ 밑으로 하락하자 미국의 에너지 업종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급락하였다. 유럽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에 대한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명하듯 금 가격은 위험자산 기피현상으로 인해 한달만에 가격이 10%넘게 상승했다. 반면 중국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강화, WTI 감소 가능성 등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도 상존하고 있다.

이래저래 뚜렷하게 시장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운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부른 전망으로 한 가지 자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배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산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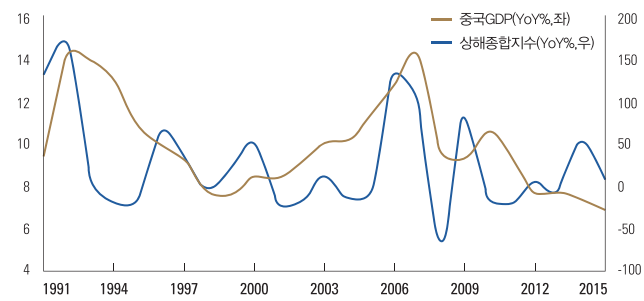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주일	유럽주식 2.2%	Gold 1.7%	미국주식 0.6%	Silver 0.2%	중국본토 -0.6%	WTI -0.8%	미국부동산 -1.3%	홍콩주식 -2.4%	한국주식 -2.9%	일본주식 -5.8%
1개월	Gold 11.1%	Silver 10.1%	WTI 0.1%	미국주식 -0.8%	한국주식 -0.9%	유럽주식 -2.3%	홍콩주식 -4.5%	미국부동산 -4.8%	중국본토 -5.3%	일본주식 -6.6%
3개월	Gold 11.6%	Silver 7.5%	한국주식 -5.6%	미국부동산 -7.3%	미국주식 -7.8%	유럽주식 -12.9%	일본주식 -18.2%	홍콩주식 -22.8%	중국본토 -23.3%	WTI -27.7%
1년	Gold -1.7%	한국주식 -4.9%	일본주식 -10.6%	미국주식 -11.1%	Silver -11.7%	중국본토 -14.3%	유럽주식 -15.5%	미국부동산 -16.4%	홍콩주식 -34.0%	WTI -44.2%

미국주식(S&P500), 한국주식(KOSPI), 유럽주식(MSCI Europe), 일본주식(니케이225), 중국본토(상해종합) / Bloomberg(2016. 2. 15. 종가 기준)

### 중국 증시 급락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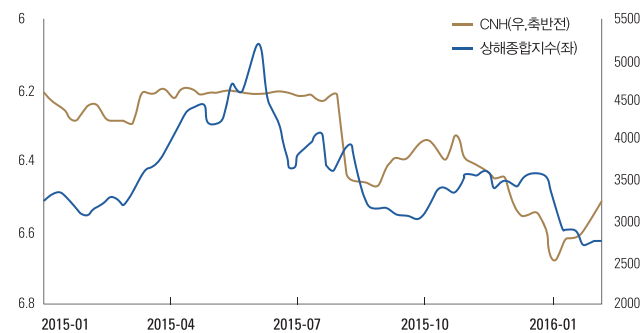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중국 증시 급락의 표면적인 원인은 위안화 절하라고 할 수 있다. 연초 이후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1.6% 절하되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향하는 국면에서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부진하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확대되며 증시가 급락했다. 동시에 인민은행이 역외 위안화 시장 개입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재촉한 것도 한몫을 했지만 연초 이후 누적된 중국 증시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중국 성장의 둔화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 후반대로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역시 중국 경기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고가 누적된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둔화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부양에 대해 노력하던 중국 정부가 부실산업 구조조정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것도 단기간 반등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는 부분이다.

### 중국증시는 장기적으로 GDP성장률에 수렴하는 경향



자료 : Bloomberg

### 최근 위안화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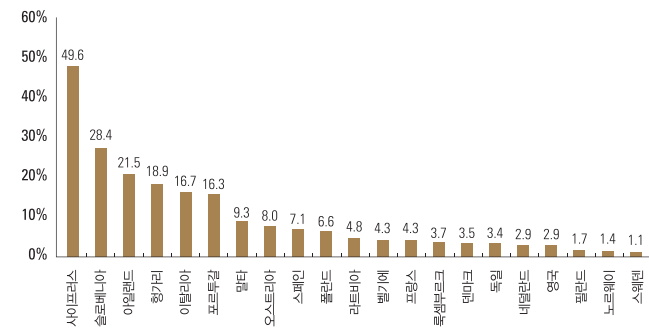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유럽은행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중국발 경기둔화 리스크에 이어 유럽은행의 부실자산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바젤 III를 도입해 자기자본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금융 위기 이후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조건부 후순위 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인 코코본드이다. 코코본드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영구적이거나 길고, 은행 자본비율이 채권 발행 당시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 처리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즉, 은행들은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코코본드 중 전환형은 은행부채가 한계를 넘을시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을 높이게 되고, 상각형은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6~7% 수준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코본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 도이치뱅크에서 발행한 코코본드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유럽은행 전체에 대한 부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가들의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비율(NPL ratio)이 높아 요주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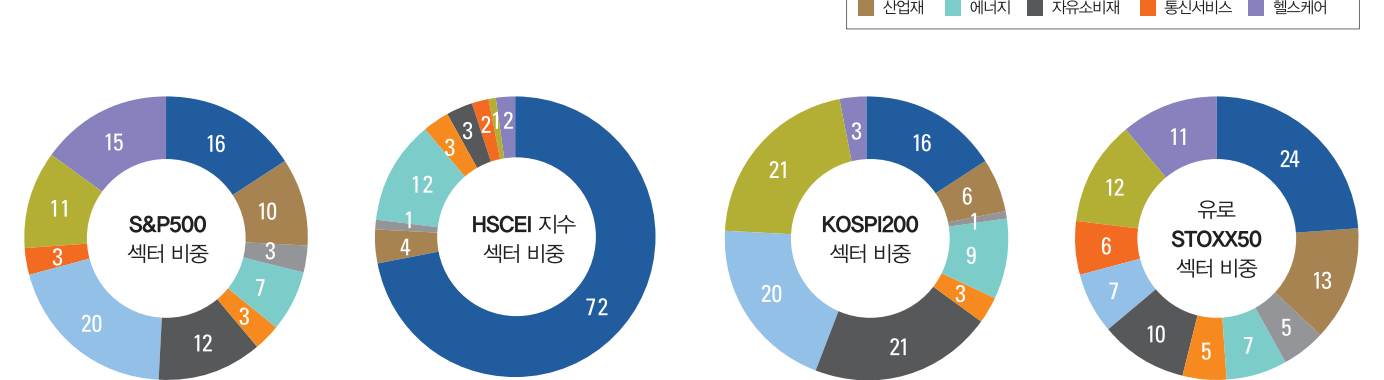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럽은행들이 보유한 파생상품(원자재, 하이일드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될 경우 은행관련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 2Q15 기준 EU 국가별부실채권비율(NPL ratio) (단위:%)



자료 : 유럽은행감독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구조화 상품에 주로 사용되는 주가지수의 섹터별 비중 (단위:%)



자료 : Bloomberg

### 예금상품 또는 구조화 상품 투자가 유리

이 밖에 작은 뉴스에도 하루에 몇 %씩 변동성을 하며 그 여파가 주식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는 WTI,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지표로 금리인상 스케줄에 문제가 생긴 미국 경제 등을 고려하면 경제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난망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중금리형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해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현재 금리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제한된 구조화 상품(ELS, ELB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ELB는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형태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원금수준 또는 시장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ELS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손실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기초자산의 선택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  
가격이 급락한 자산의 반등을 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권하고 싶다.**



10년간(2001~2010) 동일한 구조(스텝다운형)로 발행된 ELS의 상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KOSPI200이 기초자산인 경우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큰 변동(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섹터간 비중 분산이 잘 되어 있는 KOSPI200의 역사적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확실한 시장환경 속에서 가격이 급락한 자산의 반등을 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권하고 싶다.

[환율] 미국 달러 바로보기

# 각국의 통화 약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여파는 어디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인상 우려가 주된 관심이었다면, 현재는 '살얼음판' 시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세계 경기 둔화 여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지로 바뀌었다. 2016년 각국의 통화 약세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본다.

글: 김홍겸 수석연구원(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 달러 강세의 주요 요인

###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위기

과거의 달러 강세기를 짚어보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흥기와 주변 국가의 위기<sup>1)</sup>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달러강세의 기간 및 폭이 더 길고 컸다. 즉,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달러 강세의 흐름은 어떠한가? 테이퍼링(Tapering)<sup>2)</sup>과 그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로 인한 상승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달러 강세의 흐름이 국제유가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들의 위기가 달러를 강하게 이끌어 오고 있다. 현 시점은 산유국의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달러인덱스와 유가(혹은 원자재)의 부(-)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면 미래의 어느 시기부터는 달러 약세와 유가의 강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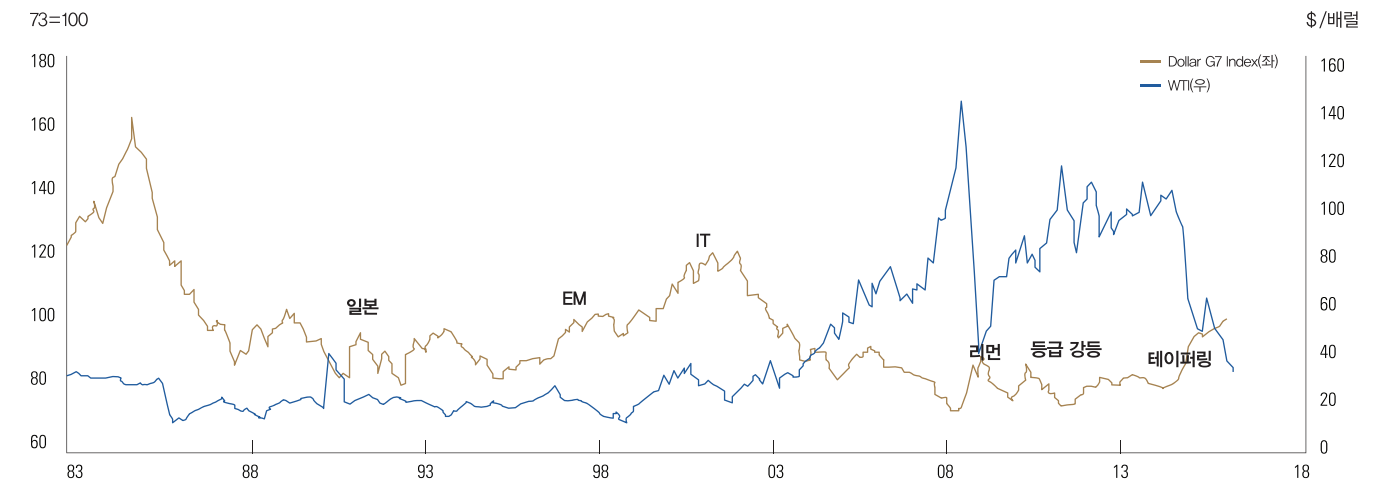
### 중국발 글로벌 경제 부진

새해 첫날부터 중국 주식시장 급락, 위안화 평가절하 및 외환보유액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경기둔화와 기업이익 둔화, 경제주체들의 부채증가, 성장위축이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이후 첫 6%대 성장률을 기록(2015년 6.9%)하면서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부진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요인이다. 또한 과잉 투자되었던 제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부채 관리로 은행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은행의 여신기능 약화는 중국의 금융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부채조정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실물경기는 예상보다 더 부진해 질 수 있다. 현재처럼 세계교역량이 줄어들면서 둔화세가 길어질수록 위안화를 두고 중국 당국과 헤지펀드의 힘겨운 싸움이 재발할 수 있다. 중국도 점점 더 커져가는 환율방어 비용을 못 이기고 위안화 절하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달러 선호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 1) 1983~85 남미 외환위기, 1995~98 아시아 외환위기, 2008 리먼사태 이후 2010 남유럽 위기, 2011 미국 신용등급 강등
- 2) 테이퍼링(Tapering) :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벤 버냉키 Fed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됨.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함. 추후 금리인상을 실시하면서 자산의 본격적 회수로 신흥국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달러인덱스와 유가



출처 : Bloomberg, IBK기업은행

## 달러 약세의 주요 요인

### 미국 지표 부진

작년 말에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미 연준은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불과 두어 달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제조업수주 감소폭 확대, 운송장비 수주 감소, 내구재주문 감소세,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 많은 지표가 부진해지고 있다. 이는 달러화 가치 상승에 기인하는 결과인데, 현재와 같은 강달러는 미국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연준은 달러 약세를 피할 것이다.

### 주요국 통화 강세

유가 급락과 경기 둔화 우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 기조 강화 등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딜레마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겁게 환호하며 상승하기는커녕 엔화 강세 및 주가 하락 등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매입 시시에도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의도한 바와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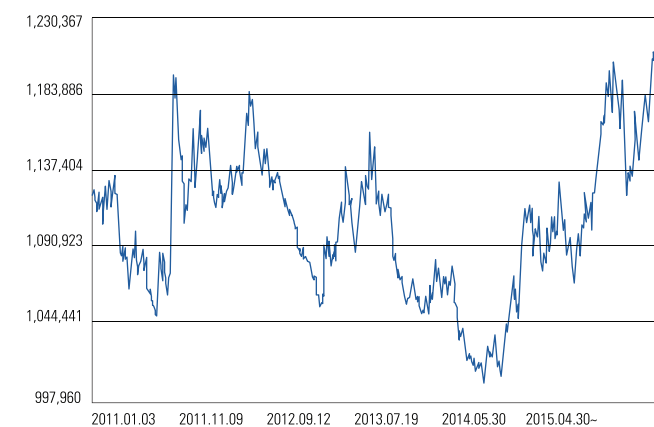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더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유럽과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희석시켜 정책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적당한 위안화 약세 유도에 힘쓰고 있으나 자본 유출 우려 등으로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딜레마와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지속하게 할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년 동안 무리했던 중앙은행들의 개입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달러/원 전망

달러/원 환율도 해외통화들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한 모습들로 인해 어디로 튈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팩트에만 집중해 보면, 첫째, 달러/원 환율은 장중 변동성은 크나 1200원 부근의 익숙한 레인지에서 등락하고, 둘째, 달러 약세에 맞서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세가 지속되고 있고, 셋째, 외국인 자금이탈 등이 투자시장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쉽게 12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 전망이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우려 및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등의 달러강세 요소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달러/원 환율은 당분간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생산 동결 발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유가의 본질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가 레벨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우려감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를 완전히 털어버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 달러/원 환율



출처 : IBK기업은행

세계 경제 회복도 별다른 전환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최근의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인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고전하던 상품 통화들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부분 환율에 선반영 되었다고 본다. 한편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던 원화는 그간 부진했던 통화들의 약진과 중국 불안, 금리인하 기대 및 대북 리스크 등으로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12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WIN CLASS가 추천하는 펀드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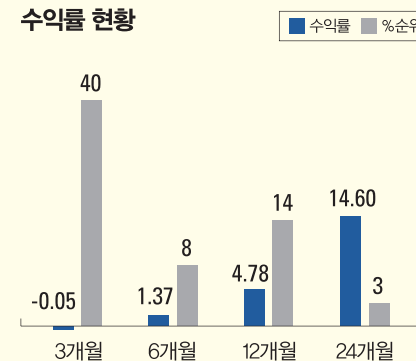
자료: 마케팅전략부 투신상품팀

### 주식 혼합형(배당+옵션P)

##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 배당수익과 옵션 프리미엄, 채권이자 등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현금수익 + 우선주/배당주의 가격상승을 통한 추가 수익 기대
- 수익 기여도가 큰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차익 비과세로 양호한 절세효과

###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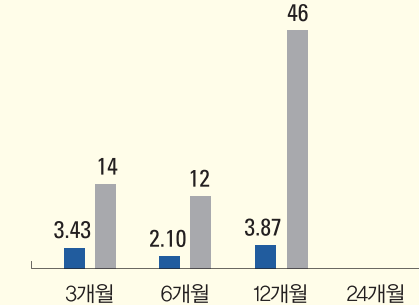
### 채권 혼합형(롱숏)

## IBK 가치형롱숏40

- 기존 롱/숏 펀드와 달리 두 종목간 밸류 에이션을 철저하게 비교하여 롱(매수)/숏(매도)함으로써 시장의 지수흐름을 헤지
- 중소형가치주 종목 중 상승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알파수익을 추구

### 수익률 현황

제로인, '16.2.19 기준, 기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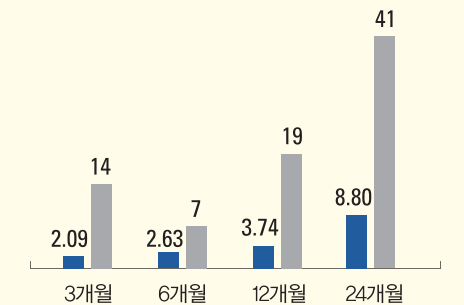


### 채권 혼합형(공모주)

## 트러스트 공모주알파

- 채권투자로 안정적 수익+공모주 투자를 통한  $\alpha$ 수익 추구
-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리서치와 네트워크로 우량 공모주에 선택과 집중하여 수익 극대화 추구

###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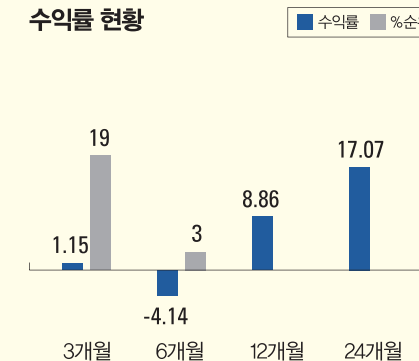


### 주식형(테마주)

## 맥쿼리 뉴그로스

- 중국의 소비시장 및 신성장 시장 확대에 따른 중국 내수수혜 종목을 발굴하여 초과수익에 집중
- 중국 소비확대로 수혜 받는 국내기업 투자에 따른 기대감 상승

###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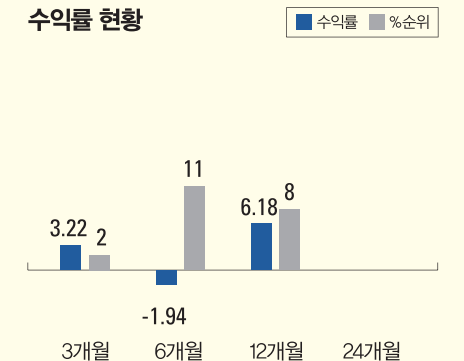


### 주식형(가치주)

## 키움 장기코어밸류

- 순자산이 꾸준히 증가할 만한 핵심 가치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하락방어력을 높여 장기수익률 제고
-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저평가된 중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여 장기성과가 기대

### 수익률 현황





# Issue Class

최신 금융 이슈와 스페셜 테마를 중심으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 16 쉽게 읽는 경제
- 20 금융 포커스
- 22 SPECIAL THEME [종자돈]

- 원유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전략
- ① 종자돈 마련의 기준과 의미
- ② 종자돈 모으는 기술
- ③ 종자돈 관리 시뮬레이션



## 원유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멀지 않은 시련의 끝

최근 저유가 상황의 원인과 향후 원유 시장 전망,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알아본다.

글. 임태호 선임연구원(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2014년 11월 28일, 석유수출국기구(이하 “OPEC”)는 정례회의에서 과거의 글로벌 원유 수급조절자(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당시 시장의 예상을 빗나간 OPEC의 결정으로 원유 시장에는 큰 혼란이 찾아왔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마치 당연하고 나아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100달러 전후의 고유가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하던 미국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2016년 2월 11일 26.21달러를 기록하며 70% 이상 하락하였다. 이와 함께 한 때 ‘검은 진주’라고 불리던 원유를 이용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산유국들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 저유가 상황의 원인과 향후 원유 시장 전망과 함께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알아본다.

### 미국 셰일업체 vs O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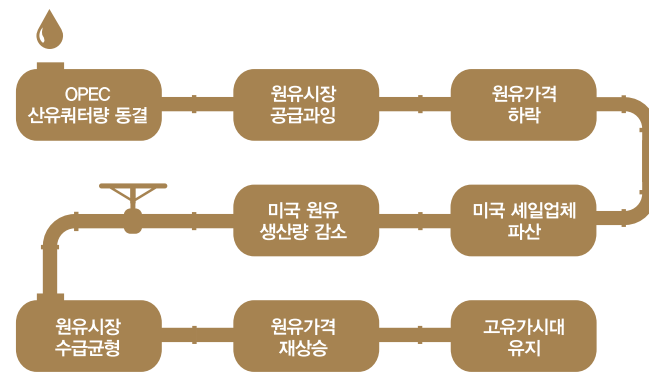
배럴당 100달러를 장기간 유지하던 원유 가격 하락의 시발점은 미국의 셰일업체와 OPEC간의 ‘치킨게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셰일업체들이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와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sheikhs vs. shale

자료 : Economist



라는 첨단 시추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최대 석유생산국이 되었다. 글로벌 원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왔던 OPEC은 비OPEC(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분만큼 감산 압박을 받았으나, 지난 2014년 11월 산유쿼터량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에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공급경쟁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때 당시 OPEC의 산유쿼터량 동결 결정 배경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저유가를 버틸 수 있는 OPEC과 달리 미국 셰일업체는 개별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원유가격이 생산원가를 하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4년 당시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원가는 배럴당 70달러 전후로, OPEC 오일 생산원가는 30불~40불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금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원유를 캐내기 위한 시추기수는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계속되는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원유 생산량은 아직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원유 가격 수준은 OPEC의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특히 OPEC 회원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5일 국가경제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셰일업체와 OPEC간의 치킨게임의 최후 승자가 누가될지는 선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미국 셰일업체가 수급조절자(Swing Producer)의 역할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앞으로 원유시장은 가격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과거에 보았던 고유가 시대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원유전망, 고진강래(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은 고유가 시대가 끝나고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쉽사리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지 전망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의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머물지,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배럴당 10달러 대로 추가하락할지, 아니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배럴당 40달러~50달러 수준까지는 상승할지를 전망하기에는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큰 상황이다.

원유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작년 말에는 첫째,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둘째, 미국의 원유 정제소 붐철 유지보수로 인한 비수기 돌입, 셋째, 3월 미국 FOMC의 추가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3월에 저점형성을 예상하는 3월 위기설이 시장에서 회자되었다. 최근에는 3월 위기설 원인 중 하나인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예상했던 3~4월이 아닌 1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올해 초 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3주 만에 26달러로 30% 가까이 하락하는 시련을 맞이했다. 반면 3월 미국 FOMC의 추가 금리 인상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해 FOMC의 입장이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어 원유 가격에는 후호적이다. 최근의 시장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기존의 3월 위기설의 저점을 어찌면 조금은 일찍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올해 2월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중반 수준까지

하락이 반복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국간의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실제로 2월 1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카타르, 베네수엘라 등이 유가 하락에 맞서기 위해 원유 생산 동결에 합의했다. 게다가 다음날 이란의 석유장관과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장관이 원유 생산량 동결에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원유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직까지는 실제 이번 동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원유 시장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던 ‘감산’이 아닌 ‘동결’ 합의에도 시장이 이토록 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시장에서는 2가지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최근의 가격 하락이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OPEC의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갑작스럽게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애초에 OPEC이든 비OPEC이든 감산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원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감산 결정을 하게 되면 감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산유국들만 원유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산유국들은 수 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OPEC과 비OPEC간의 공조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봤던 시장참여자들에게는 동결 합의 자체도 상당한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앞당겨진 3월 위기설과 OPEC과 비OPEC간 동조를 이유로 조심스럽게 현재의 원유 가격 수준에서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상승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상승가능할지를 전망해보자.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유가의 장기화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의 유전 지역 중 손익분기점이 가장 낮은 Permian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작년부터 원유 생산량이 둔화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까지 줄어든 시추기수의 영향과 저유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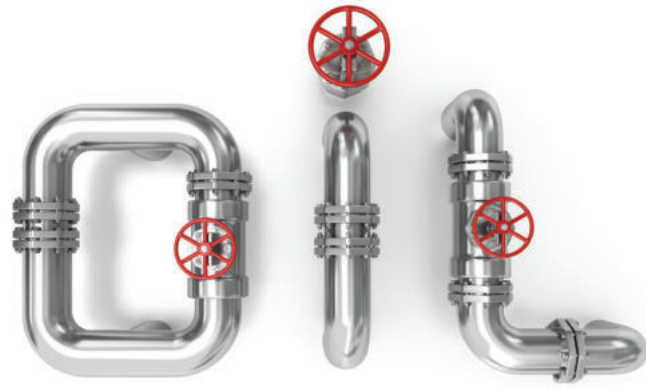
금리인상에 의한 미국 세일업체들의 부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서는 하반기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7.4%(일일 7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일 100~150만 배럴의 공급과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원유 생산량 일일 70만 배럴 감소는 수급 균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산유국들도 저유가에 따른 자본투자(CAPEX) 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원유의 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작년 7~8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전세계 원유 수요 감소 전망과는 달리 중국의 원유 수요는 전략비축유(SPR) 수요와 저가 매력에 의해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2분기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등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기간이다. 이번 겨울이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엘니뇨(동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에서 해수면 온도편차가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영향에 따른 난방수요 저조 등으로 원유 소비가 둔화된 것과 반대로 저유가로 인해 미국 드라이빙 시즌에는 원유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원유 가격은 2분기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원유 가격 반등시 미국 세일업체들의 탄력적인 공급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40~50달러의 제한적 상승을 전제한다. 또한 아직까지 사우디-이란간 종교적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의 변동성 확대는 조심할 필요는 있다.

### 원유 투자전략

원유 전망을 요약하면 공급 측면은 미국의 원유 생산 둔화와 산유국들의 공조 분위기, 수요 측면은 견고한 중국의 원유 수요와 미국 드라이빙 시즌 성수기 돌입 등의 이유로 원유 가격은 1분기 중 저점을 형성한 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원유 가격 상승시에는 어떤 투자가



가장 효율적일까?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 가능한 원유 관련 상품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원유선물을 추종하는 펀드(또는 ETF)
- 둘째, 원유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또는 ETF)
- 셋째,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DLS)

이 중 원유선물을 추종하는 펀드(또는 ETF)는 저유가로 인한 콘탱고 상황(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에 멀수록 높아지는 상태) 심화로 매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배제를 추천한다. 원유 투자는 보유하고 있는 최근월선물의 만기일까지 선물 롤오버를 하지 않으면 원유 현물을 인수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최근월선물의 만기일 이전까지 차근월선물로 교체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콘탱고 상황에서는 저렴한 최근월선물을 팔고 비싼 차근월선물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원유 투자자에게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향후 원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의 콘탱고 상황이 유지될 수도 아니면 반대로 백워테이션 상황(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에 멀수록 낮아지는 상태)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공급과잉 이슈로 야기된 지금의 저유가 상황에서는 콘탱고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몇몇 펀드(혹은 ETF)는 원유선물 일일변동성을 2배 혹은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한데, 원유 가격이 5% 상승하면 2배 레버리지펀드(혹은 ETF)는

10% 상승(원유 가격 상승분 5%×2배 레버리지)을 목표로 운용되는 만큼 원유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대처럼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만 한다면 레버리지펀드(혹은 ETF)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원유 가격이 5%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펀드(혹은 ETF)는 10%하락(원유 가격 하락분 5%×2배 레버리지)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상승과 하락 2가지 상황만 고려한다면 레버리지펀드(혹은 ETF)도 나름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레버리지 펀드(혹은 ETF)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투자가 된다. 예를 들어 배럴당 30달러인 원유 가격이 첫 날 5% 상승하고 다음 날 5% 하락한 상황을 가정하면, 2배 레버리지펀드는 첫 날은 10%(원유 가격 상승분 5%×2배 레버리지) 상승으로 배럴당 33달러 만큼의 원유 가격을 기준가에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은 전일 대비 10%(원유 가격 하락분 5%×2배 레버리지) 하락하여 배럴당 29.7달러 만큼의 원유 가격을 기준가에 반영하게 된다. 양일간 원유 가격 상승률과 하락률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투자는 1%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투자결과는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도(심지어 일반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할수록 그 값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원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또는 ETF)는 원유 관련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원유 가격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유에 직접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성과가 원유 투자 성과와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원유 선물을 추종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원유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유 산업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Upstream(탐사, 시추, 개발, 생산)
2. Midstream(보관 및 운송)
3. Downstream(정제 및 판매)

각 산업마다 원유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성과 또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산업 중 원유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Upstream이다. 따라서 올해 2분기 이후 원유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Upstream과 연관된 상품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원유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Upstream보다는 Midstream이나 Downstream과 연관된 상품을 고려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DLS)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제는 대표적인 재테크 상품인 ELS와 동일한 스텝다운 구조에 기초자산만 원유를 활용하는 이 상품은 만기까지 배럴당 15~18달러(Knock-In (원금손실가능)조건 50%~60% 기준)를 하회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연 5~7%)을 지급해준다. 원유 가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1분기 저점 형성 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투자 고려를 해볼만하다. 다만 실제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원유가격 상승은 제한이 없지만 DLS의 수익률은 제한적이며, 원유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Knock-In이 발생된다면 만기 때 하락분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 또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DLS)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시에는 자동으로 투자가 종료되며, 국내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ELS)과 비교할 때 만기 이후 원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원유 가격의 흐름과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투자성향과 이해수준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유의 경우에는 해외자산이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국내자산에 비해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현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원유 시장은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비한 사례별 절세 전략과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알아본다.

글. 강형규 세무사(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 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자소득에는 정기에금, 보통예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 등이 있고 배당소득에는 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 등이 있다.

## 사례A)

고객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A는 2015년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 원이고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추가 세 부담이 얼마인지 걱정하고 있다.

## 사례B)

이자소득만 2천5백만 원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B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지도 몰랐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도 하지 못하였다. 과연 B는 관할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될까 또한 건강보험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될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합산 과세시 세액<sup>1)</sup>과 분리과세시 세액<sup>2)</sup> 중 큰 금액이다. 이와 달리 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납세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는 최소한 불리하지 않다. **사례A**의 경우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 및 한계 소득세율에 따라 추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율 (누진세율)	추가 부담세율	추가 세부담액(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 3천만원
6%	-	없음
15%	1%	11만원
24%	10%	110만원
35%	21%	231만원
38%	24%	264만원

추가 세부담액 = (금융소득 - 2천만원) × (1.1% ~ 26.4%)

**사례B**의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무신고 자료(소득합산표 II)가 생성이 된다. 세무서 담당자는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세액이 종합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크므로 이자소득금액 2천5백만 원과 산출세액 350만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결정을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B에게 소득세를 징수할 금액은 없다.

## Q 금융소득(금융소득금액 7,724만원, 소득공제 210만원 가정)만 있을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는 금융소득은 얼마가 될까?

- ❶ 2,000만원 × 0.14 + (5,724만원 - 210만원) × 누진세율 = 10,813,600(합산과세시 세액)
- ❷ 7,724만원 × 0.14 = 10,813,600원(분리과세시 세액)

산출세액 Max(❶, ❷) = 10,813,600원이며 기납부세액도 10,813,600원으로 추가 세 부담 없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7,72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이 없다.

## 건강보험료는 달라질까?

세무서에서 결정한 종합소득금액은 매해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가 통보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은 소득 및 자동차, 부동산 점수를 합산(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포함)한다.

만약에 B의 소득이 전년도 소득 0원(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에 비해 2천5백만원 증가할 경우에 소득별등급 점수는 895점이 된다. B의 월 건강보험료는 160,740원(=895점×179.6원) 높아지게 되어 총 보험료는 205만원(장기요양보험료 6.55% 포함) 정도가 오른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자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55세 이후부터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제외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계획을 세워도 좋다.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가입 자격, 저축원금 5천만 원 한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얻는 금융소득은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9.9%로 분리과세 되므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단 ISA의 경우에 직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가입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연간(1.1 ~ 12.31) 소득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2년 만기 복리채(연 이자율 2%)를 투자할 경우 만기에 3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만 2년 만기 이표채(분기별 0.5% 이자 지급)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년 1천 5백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부과 기준을 삼고 있다. 증여일부터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납부할게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산 증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할 수가 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투자 및 금융재산 증여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누진세율(6% ~ 38%) + 2천만원 × 14%  
 2)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누진세율(6% ~ 38%) + 금융소득 × 14%  
 위와 같은 계산구조는 금융소득을 최소 14% 원천징수세율 이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세법의 취지가 담겨 있다.

# 종잣돈 마련의 기준과 의미

재테크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종잣돈의 중요성]이다.  
과연 얼마의 돈을 모아야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종잣돈이란 과연 무엇일까.

글. 우용표(재무설계 전문가)



대부분의 재테크 관련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종잣돈의 중요성이다. 종잣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노후도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종잣돈이 있어야 좋은 투자처가 있을 때 그림의 떡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과연 얼마의 돈을 모아야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종잣돈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함께 종잣돈에 대해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종잣돈 마련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본 후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종자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보기로 하자.

## 1. 종잣돈 - 씨앗

종잣돈, 영어로는 Seed money라고 한다. 종자도 그렇고 seed도 마찬가지로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종잣돈은 단어만 놓고 보면 씨앗이 되는 돈이라 해석할 수 있다.

종잣돈 = 씨앗이 되는 돈

이 부분이 기가 막히다. 씨앗이 가진 특성과 종잣돈이 가진 특성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의 대한민국을 보자.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초근목피, 보릿고개와 같은 말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그 곤궁한 삶을 나타내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결코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그 해에 심어야 하는 종자(種子)였다.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종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자를 건드리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 종자는 올해의 먹거리를 위해 꼭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선배세대는 잘 알고 있었다. 종잣돈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보다는 앞으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자금인 것이다. 종잣돈은 단순히 재테크를 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간직해야 하는 돈을 가리킨다. 종자를 소중히 지켜내야 한다는 것.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원칙인 듯싶다. seed money라는 단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 2. 종잣돈 - 그러나 결과는 불확실하다

다시 씨앗을 생각해보자. 올해의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장마나 가뭄으로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대풍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같은 씨앗을 같은 논, 밭에 뿌리더라도 날씨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결과를 모른다고 해서 씨앗을 안 뿌릴 수는 없다. 종잣돈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경제상황에 의해 예상 못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흉년 때문에 삶이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결과를 모른다고 해서 종잣돈을 모아도 될 사람만 되고, 안될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을 보라. 무언가 미래를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라는 조언을 듣게 되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씨앗 자체를 뿌리지 않는다. 누구는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다른 누구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라고 한다. 심지어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해보다는 내년의 농사가 중요해지는 시기 또는 갑자기 퇴출통보를 받아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하게 된다. 미리 씨앗을 준비해 놓고 수확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씨를 뿌리는 것. 종잣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땅에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싹이 돋지는 않는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자마자 이자가 붙지는 않는다.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인내심을 가져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종잣돈은 필요한 시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금인 것이다.

## 3. 종잣돈은 습관이다

5천만 원 모으기 또는 1억 원 모으기. 이렇게 금액을 목표로 정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잡고 실행함을 의미한다. 다른 것들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다.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면 습관이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 만고의 진리다.

마찬가지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돈을 안 써야 한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쓰면서 모으고 싶은 대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허황된 거짓말일 뿐이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돈을 쓰는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한다. 종잣돈 모으기는 목표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돈 쓰는 즐거움을 미루고 돈 모으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습관을 키워준다.

#### 4. 얼마가 종잣돈일까?

과연 얼마를 모아야 종잣돈이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 소득의 크기가 다르고 소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연예인에게는 광고 한 편을 찍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2~3년 혹은 10년 이상 열심히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종잣돈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누군가 종잣돈의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 금액을 모으고 안심하면 될 텐데 말이다. 반면 종잣돈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딱히 없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역발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얼마가 종잣돈일까?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종잣돈을 모아본다면 어떨까 싶다.

#### 종잣돈 1단계 - 본인 연소득의 2배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억 원을 목표로 해보자.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으면 대출이자에 카드 값에 자녀교육비까지 빠져나가면 1달이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마이너스의 생활에서 과감히 벗어나 본인 연봉의 2배를 모아보는 것이다. 그 2배를 모으는 뻘뻘한 계획과 생활은 처음에는 괴로움 그 자체가 되지만 습관이 되면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운동과 비슷하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엔 자세도 서툴러서 하고나면 온 몸이 아프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 운동효과를 보면서 건강해지게 된다. 직장생활의 괴로움을 쓴 소주와 건강에 나쁜 담배보다는 통장의 잔액을 통해 위안 받겠다는 계획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하다. 혹시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라해도 비슷한

기준을 세워볼 수 있다. 본인 연간 소득의 2배를 1차 종잣돈 목표로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처럼 괴로움을 잔액으로 달래보고 말이다.

#### 종잣돈 2단계 - 연봉/연소득의 10배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5억 원, 연소득 1억 원인 자영업자라면 10억 원을 종잣돈으로 모아보자. 목표가 거창하다.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다. 매월 적자를 면하는 것만으로도 안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봉의 5배/10배라니 말이다. '진짜 사나이'라는 병영체험 프로그램 해병대편에서 조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것이 있다. "못하겠어? 그럼 나가!" 2단계 종잣돈 역시 그렇다. 연봉의 10배를 모으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간다거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옆집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다. 나에게 종잣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성적표는 돈이 필요할 때 받게 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다고 해보자.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하면 대략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따로 3억 원 정도 모아두어야 한다. 한 달에 100만원씩만 쓴다고 했을 때 300개월, 즉 25년 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25년보다 더 오래 살거나 더 적게 살거나 하는 변수는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규모를 늘려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사무실에 직원에 초기 비용만 해도 대략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연봉의 10배, 연소득의 10배라고 했을 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감이 들기까지 하는 금액인 것이다. 1단계에서 만족하지 않고 2단계까지 도전해 본다면 생활은 말 그대로 종잣돈 모으기의 습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연봉 10배,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 연소득의 2배까지는 1단계, 10배까지를 2단계 종잣돈이다. 인터넷에 흔하게 나오는 천만 원 모으기, 또는 5천만 원 모으기는 이러한 각 단계를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종잣돈 모으는 기술

종잣돈을 모으는 기술은 교양으로 읽어두거나 지적호기심을 위한 내용들이 아니다. 자신이 실천할 수 있다면 주저 없이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 1. 종잣돈 굴리기와 모으기

종잣돈을 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먼 친척이 막대한 유산을 남겨준다거나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이 토지보상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들은 모아서 만든 돈이 아니라 운이 좋아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금이 들어온 사람들이 성실하게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들러오는 소식들은 복권에 당첨되었던 행운의 사나이가 3년 만에 파산을 했다거나 토지보상 지역에 사기꾼이 들끓는다는 것들뿐이다.

이제 종잣돈 굴리기와 모으기의 기본적인 방향을 짚어보자.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데 우선 종잣돈 굴리기는 모아진 종잣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종잣돈 모으기는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 월급이나 투자의 수익을 종잣돈에 추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영장을 생각해보자. 수영장의 수위를 관리하는 것은 종잣돈 굴리기, 그리고 수영장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은 종잣돈 모으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고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잣돈 굴리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안전하게 굴린다는 것이다.

본인의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금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돈을 굴려보다가 손해를 보면 비싼 수업료 정도로 생각하고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 젊지 않은 나이에 손해를 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면서 만회할 시간도 없다. 일정 비율 이상은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번에 바꾸겠다거나 요행에 의지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계획은 무모할 뿐이다. 은행의 예금/적금 이자가 낮은 세상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내 돈이 지켜지기 때문에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최선이다. 은행이자 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 종잣돈을 굴리는 과정이 아니라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과감해도 좋다. 월급의 일정부분을 주식이나 펀드에 넣는다거나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자.

종잣돈 굴리기(목돈을 보관) = 안전하게  
종잣돈 모으기(목돈에 추가) = 과감하게

### 2. 종잣돈 관리 10계명

종잣돈을 모으고 굴리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원칙은 아래와 같다. 종잣돈 관리 뿐 아니라 돈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참고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1 욕심내면 탈나게 된다



큰돈을 벌 수 있다. 원금 확실히 보장된다와 같은 아름답기까지 한 설명은 '사장님, 좋은 땅 있어요'와 같다. 말이 안 된다. 원금과 수익률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과 이자뿐이다.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펀드마저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세상이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익만 계산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계산해보지 않는 것. 참으로 위험한 계산법이다.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연수익률 기준으로 주식 30%, 펀드 20% 부동산 임대수익률 10%를 넘는 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위험의 크기도 그와 비슷하다.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10%~30%라고 보면 된다. 종잣돈 모으기가 과감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는가? 여기서 과감함이란 무모함과 다르다. 원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식, 펀드,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좋은 땅 있어요와 같은 누군가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

## 2 서둘러서 좋을 것 없다



택시가 그렇다. 손님을 많이 태워서 당일 사납금을 채운 택시기사는 불법으로 운전하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다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할 여유가 생긴다. 사고 나는 택시는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고 빈 차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손님을 태운 경우가 많다. 재테크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손해가 났을 때 서둘러 만회하려고 선물, 옵션 같은 위험한 상품에 손을 대면 더욱 손실을 보게 된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종잣돈 마련은 100m 전력 달리기보다 아니라 계속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기 때문이다.

## 3 분산시켜 보자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다. 어느 때엔 주식시장이 좋다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도 한다. 주식에만 또는 부동산에만 모든 자금이 모여 있다면 시장상황에 따라 건강까지 영향을 받는다. 금융상품, 부동산 상품에 자금을 나누고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예금을 기본으로 주식과 펀드로 다시 돈을 나누어 담자.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고 하지 않던가.

## 4 실행계획은 느슨하게



학창시절 방학숙제를 할 때 방학 중 생활계획표를 억지로라도 작성해 본 경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매년 새해가 될 때 굳은 결심을 하고 수첩이나 휴대폰에 그 결심을 메모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방학기간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 계획표, 그리고 새해가 되었을 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겠다는 그 굳은 결심과 계획. 문제는 그 계획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하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해서 하나를 놓치게 되면 계획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니 '올해는 안 되겠네' 또는 '이번 방학은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계획을 좀 느슨하게 잡는다면 이렇게 포기하는 일은 없게 된다. 어쨌든 해냈다는 체험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종잣돈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 역시 너무 정교할 필요는 없다. 매월 종잣돈을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금액의 최소 하한선을 세워보면 된다. 다음해가 되면 그 하한선을 좀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점차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만원단위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실행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못가 지치게 된다. 되도록 느슨하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보도록 하자.

## 5 수익률은 불확실하지만 소비는 확실하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이 아닌 이상,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종잣돈을 얼마나 더 빨리 모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대신 내가 얼마를 소비하는지 카드 값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불공평한 게임이기는 하다. 내가 벌 돈은 잘 모르는데 내가 쓸 돈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 한편으로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내 손을 떠난 문제이지만 내가 쓰는 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익률 1%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 나은 예/적금 이자를 위해 지방에 간다거나 부지런히 인터넷을 통해 금리비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 1%를 줄이는 것은 간단하다. 내가 안 쓰면 그만이다. 특히 보험상품은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험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낭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는 것. 먹어야 할 것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이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효율적인 종잣돈 모으기의 한 가지 원칙이 여기 있다. 수익률은 불확실하지만 소비는 확실하다는 것. 즉 소비를 줄이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 6 순서를 지키자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순서가 있다. 종잣돈 모으기도 마찬가지다. 같은 직장/사업장에서 월급이나 소득이 들어왔을 때 우선 쓰고 본 다음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과 반대로 저축부터 하고 나머지 금액을 쓰는 사람이 각각 있다면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둘의 차이는 벌어지게 된다. 돈이 들어오면 우선 최소한도의 저축부터 실행하자.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소비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순서가 중요하다. 선저축, 후소비.

## 7 공부할수록 안 속게 된다



은행에서 파는 펀드는 안전하다거나 큰 증권회사니까 알아서 원금을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들은 순진하다 못해 바보 같은 생각들이다. 은행에서 파는 펀드, 증권회사에서 VIP 대접을 해주며 투자해주는 주식, 모두 이익의 크기만큼이나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소중한 내 돈, 내 종잣돈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 순진하게 당할 이유가 없다.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이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상품이다. 2000년대 초 한창 남성 보험설계사들이 FC(Financial Consultant), FP(Financial Planner) 등의 명함으로 변액보험 상품의 판매 붐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때 일부의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이 "2년만 유지하시면 원금보장 됩니다"라고 하거나 "이건 보험상품이지만 펀드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었다. 참고로 변액보험은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보험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비싼 상품이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나의 종잣돈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8 자기계발은 수익률 100% 이상



직장인의 경우 공부를 한다던가 사업자는 최고위과정 등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자기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높아진 몸값은 종잣돈을 모을 때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여력이 생기게 해준다. 100의 돈을 써서 100을 얻어가는 것은 소비, 80만 얻을 수 있다면 낭비 그리고 120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투자인 셈이다. 자기계발은 세상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몇 안 되는 투자상품이라 할 수 있다. 어학원에 또는 전문과정에 쓰이는 돈은 분명히 몇 배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병원비와 약값을 아끼는 만큼 수익을 보는 셈이니까.

## 9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연말정산에 있어 어느 카드가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를 내가 가진 여력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부가 된다. 카드회사에 빚을 지게 만든다. 반면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잔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다. 무언가 물건을 사기 위해 체크카드를 내밀었는데 잔액부족이 뜬다면 서둘러서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잠시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돈 모이면 다시 사러 올게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장에 남은 잔액은 선투자 후소비의 원칙을 지킨 경우라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 10 종잣돈을 위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자



돈에는 이름표가 없다. 그렇기에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주어야 한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신용카드도 결제하고 은행 대출이자도 빠져나가게 한다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그게 과연 순수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인지 아니면 대출이자로 내야 할 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각 통장별로 임무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월급을 받으면 각 통장으로 적절히 금액을 배분해서 잔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종잣돈은 얼마가 모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 통장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통장을 3개, 4개 만들어서 각 용도에 맞게 통장을 사용하기 바란다. 통장정리를 해보면 내역들이 나타나므로 번거롭게 가계부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 종잣돈 관리 시뮬레이션

## 사례 1

퇴직을 앞둔 50대 김철수 님, 기혼인 아들과 딸이 있고 A시에 시세 7억 원 내외의 43평짜리 아파트를 2억 대출받아 자가 소유, 자동차는 독일 B사의 중형 세단.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현금보유액은 5억 원 가량. 김철수 님은 이 5억 원을 어떻게 종잣돈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김철수 님의 경우 현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아파트 대출이자와 생활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없는 상태다. 재정적으로는 안정된 상황이지만 조만간 퇴직을 하게 되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경우라면 퇴직 이후 곧바로 다음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는 퇴직자의 취업문이 넓지 않기에 재취업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5억 원의 금액으로 사업체를 꾸미고 노후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다.

### 1억 원 : 오피스텔 임차 및 개인 사무실 오픈

일을 왕성하게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갑자기 늙게 된다. 퇴직 이후 집에서만 있으면 오히려 노후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간의 직장생활 경력을 살려 개인사무실을 열고 경영자문 또는 기업체 강사로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 자금은 대략 1억 원 내외로 오피스텔/사무실 임차 보증금에 사무실 내부를 꾸미고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어느 정도 개인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직원/비서를 뽑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적어도 전화 받을 직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다. 인터넷, 휴대폰이 비서 역할을 대신해주는 세상이다.

### 3억 원 : 상가 매입 및 임대 소득 창출

상가를 하나 매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임대수익률은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5%, 대출을 활용하면 7% 내외의 상가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7억 원 내외의 상가를 매입하여 월 순수익을 175만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 1억 원 : 은행 정기 예금과 펀드에 각 5천만 원씩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으로 보관한다. 그리고 몇 개의 펀드에 5천만 원을 나누어 넣어둔다. 1억 원의 금액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개인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환금성이 좋은 금융상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례 2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50대 중반의 홍길동님. 아직 고등학생인 딸이 있고 시세 10억 원 내외의 48평형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자가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H자동차의 신규 고급세단. 지금은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종잣돈은 대략 10억 원 내외이고 대출 없는 자가 아파트와 매월 2천만 원 정도의 사업 소득이 있기에 종잣돈에 대한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장을 넘기려하는데 대략 20억 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게 된다. 홍길동님 역시 사업을 처분하고 난 이후 노후를 대비하고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종잣돈을 활용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경우는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체를 처분하려 하는 상황이기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딸이 고등학생이기에 대학교에 진학시키고 외국유학도 보내주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라. 대학교로도 부족해서 외국유학을 다녀와야 그나마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10억 보유 금액에 더해 사업장 처분 후 얻게 되는 20억을 합쳐 총 30억 원 규모의 종잣돈. 아래와 같이 나누어 관리해보는 것을 권한다.

### 4억 원 : 정기예금 - 딸의 교육비

정기예금의 금리가 높는지 낮는지 따질 이유가 없다. 이 금액은 딸의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겠다고 주식/펀드를 할 필요도 없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 10억 원 : 부동산(상가) - 임대소득 발생용

10억 원을 들여 시세 20억 내외의 소형 빌딩을 매입한다. 대출 활용한 수익률이 6% 내외인 경우 매월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은 500만원 내외다. 특별히 사업장을 관리할 필요 없이 임대소득을 발생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 6억 원 : 금융상품 활용(ELS + 월지급식 펀드)

ELS에 2억 원, 월지급식 펀드에 4억 원을 넣어둠으로써 ELS로는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고 월지급식 펀드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한다. 월지급식 펀드를 통해 매월 20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 10억 : 종잣돈 유지(은행 정기 예금)

종잣돈으로 계속 활용한다.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용하거나 후에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는 자금으로 활용해도 좋다. 종잣돈은 부족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 충분히 마련되면 보관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Solution Class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와 재테크,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각 분야의 프리미엄 경제·금융 정보를 소개합니다.

- 32 글로벌 리포트
- 36 메가트렌드
- 38 노후설계 재테크
- 40 투자전망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금융 포트폴리오  
이제, 은행에서도 일임형ISA를 만날 수 있다  
40대 은퇴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  
불확실성 커진 국내 증시, 헬스케어로 care하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진 금융 포트폴리오

## 행복한 노후 위한 자산관리 글로벌 해법은?

미국과 영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중은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선진국 투자 리스트 해법과 연령별 리스트 분산 투자의 해법을 알아본다.

글: 조계원(뉴스웨이 기자)



국내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의 새로운 경제 상황에 놓이면서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산관리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행렬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은행의 예금은 물론 자산 증식의 대명사로 평가되던 부동산 투자만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이 보장됐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은행 예금과 부동산 투자만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국민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삼중고'는 비단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앞서 산업화에 성공한 많은 서구권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그 해법 역시 상당 부분 도출된 상태다. 따라서 선진금융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해외의 오늘날 금융투자 추세와 주요 투자상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문제의 해법을 찾아볼 시점이다.

### 미국·영국 등 선진국 '금융자산 선호'

한국은 가계의 자산에서 실물자산, 즉 부동산의 비중이 높지만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26.8%에 불과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자산의 절반 이상이 금융자산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70.1%), 일본(61.6%), 영국(52.2%) 순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50%를 넘지 않는 호주 역시 39.4%로 한국보다 높은 금융자산 비중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국내 자산 증대의 주요 방안으로 부동산 투자가 선호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내 경제의 고도성장과 맞물려 부동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으며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자산관리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자산관리 방안은 현재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금융자산 구성 역시 선진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금과 예금의 비중이 금융자산 가운데 45.5%로

가장 높고,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5.0%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현금·예금 비중이 12.7%에 불과했으며,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53.5%에 달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현금·예금 비중이 각각 27.8%와 22.0%로 한국보다 낮은 점은 미국과 같았으나 금융투자상품이 보험과 연금에 50%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 가계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금융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현금과 예금을 선호하는 한편 펀드나 주식 등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산업의 발달과 함께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의 금융자산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가계 자산 가운데 15%에 불과하던 금융자산은 2014년 26.8%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 정부가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발맞춰 가계의 금융투자상품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분산과 '생애 흐름'에서 찾는 해법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리스크가 높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비법은 무엇일까. 선진국은 그 해법을 분산과 사람의 생애 흐름에서 찾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40~50대로 다가갈수록 높은 소득을 기록하며,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생애 흐름을 보인다. 또한 20~30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의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으로 생애 흐름에 따라 편입상품의 구성이 변화한다. 가입 시 미래 예상 퇴직 시점을 설정하고, 그 시점에 투자실적을 받는 상품이다. 사람의 생애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 채권, 현금 등의 자산구성이 재설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품의 편입 및 구성은 금융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포트폴리오 설계 및 모니터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을 퇴직 시점으로 설정한 가입자는 퇴직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2040년을 퇴직 시점으로 설정한 가입자는 반대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초기 주식의 비중이 80%였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80%의 주식 비중이 채권 비중으로 점차 변화한다. 분산투자의 구조로 형성되었으며, 생애 흐름에 따라 리스크를 분배해 수익성과 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연금보호법 개정과 함께 급격히 보급이 확대됐으며, 2008년 1600억 달러 규모에서 5년 후인 2013년 말에는 6180억 달러로 무려 3.9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현재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가입하는 대표 펀드로, 지난해 기준 미국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 펀드에 가입해 있다. 티로프라이스의 투자대표인 제롬 클라크(Jerome Clark) 역시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은 은퇴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수단이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2004년 도입돼 출시되었으나 그동안 경제 여건상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이후 장기 투자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 미국 근로자의 80% 가입 비결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은 1990년 초반 바클레이즈 글로벌 사에 의해 최초로 출시됐다. 미국에서 역시 출시 초기에는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고령화가 되면서 그 유용성이 주목을 받으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사 블랙록의 은퇴 부문 대표인 칩 캐스틸(Chip Castille)은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이야말로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금융혁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의 성공과 함께 미국 근로자의 80%가 가입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투자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된 데에 그 성공 비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품의 구성이 주식, 채권, 현금 등 여러 자산으로 구성됨으로써 분사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이어 금융사에 상품의 편입과 운용을 위탁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구성하는 극단적인 자산 배분을 방지하는 구조 역시 이 금융상품의 장점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융사가 시간의 변동에 따라 자산 배분을 주기적으로 재설정해 줌으로써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을 예방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연령별 변화에 따라 자산 배분을 보수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물가상승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은 가입자들이 투자부담을 덜면서 적절한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동 투자상품으로서 퇴직연금 활성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재조정하는 점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포브스’는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의 장점을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을 인용해 설명했다. 수동 트랜스미션은 운전자가 능숙한 조정 능력과 좋은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실력이 떨어지거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지형에 따라 오토보다 못한 연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토 트랜스미션은 연비가 수동에 비해 나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 역시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서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물가상승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회복기에는 수익 창출의 기회까지 놓치게 될 수 있어 다른 투자방법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은 가입자들이 투자부담을 덜면서 적절한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동 투자상품으로서 퇴직연금 활성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편 국내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펀드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운용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함께 운용방법, 시간프레임, 수수료 등의 정보 공개를 통해 가입자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외 국내 퇴직연금 제도에 ‘생애 흐름’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포함시켜 금융소비자의 투자접근성은 물론 가입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노페인 노게인(NO PAIN, NO GAIN)’이라는 말처럼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 이제, 은행에서도 일임형ISA를 만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비한  
사례별 절세 전략과 일임형ISA 활용 전략을 알아본다.

글: 박준형 전임연구원(WM사업부 자산컨설팅팀)



3월 14일부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된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사라졌던 비과세 상품들이 다시 도입되는데, 이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계좌)'이 생기는 것이다. ISA는 이 큰 그릇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상품(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만능통장 ISA 계좌를 가지고 최근 각 금융사 별로 사전 고객유치 전쟁이 한창이다. 4월부터는 일임형ISA 또한 가입 가능한데 일임형이란 신탁형과 달리 전문가가 사전에 설정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가입가능하고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효율적인 분산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운용역의 주기적인 자산 재배분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 전문가로 부터 자산관리를 받길 원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b>가입대상</b>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b>총 가입기간 5년</b>	<table border="1"> <tr> <th>의무 가입 기간</th> <th>3년</th> <td>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청년(15~29세)</td> </tr> <tr> <th>5년</th> <td>상기 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td> </tr> </table>	의무 가입 기간	3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청년(15~29세)	5년	상기 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	
의무 가입 기간	3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청년(15~29세)					
5년	상기 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						
*의무가입기간은 가입대상 구분에 따라 3년/5년 각각 적용							
<b>납입한도</b>	5년간 매년 2,000만원(최대 1억원)						
<b>편입상품</b>	예금, 펀드, ELS 등						
<b>세제혜택</b>	<table border="1"> <tr> <th>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th> <td>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td> </tr> <tr> <th>운용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th> <td>상기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 · 청년(15세~29세)</td> </tr> </table>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상기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 · 청년(15세~29세)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분리과세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상기외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농어민 · 청년(15세~29세)						
<b>기타</b>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 가능 '18.12.31일까지 상품 가입가능 *단 상품내용 및 관련 세제혜택은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CHECK POINT

**체크 1** 국내주식형펀드, 비과세해외펀드 가입 NO~  
채권형 펀드, ELS 가입 YES YES!!

비과세 효과	
<b>예시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입한도 2,000만원을 정기예금 2%로 운용 시</li> <li>이자는 연 40만원. 이자에 붙는 세금이 15.4% 즉 6만1,600원이 세금으로 징수</li> <li>ISA계좌의 경우 이 부분을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으로 6만1,600원 절감</li> </ul>
<b>예시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만원을 연 10% 수익률인 ELS(지수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한 경우</li> <li>ELS가 1년 만에 조기상환이 됐다면, ELS 투자 수익은 200만원이다. 배당소득세 30만8,000원 절감</li> </ul>

ISA는 가입대상에 따라 이자소득이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세금을 부과한다.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5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펀드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던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형펀드나 비과세 해외펀드는 이미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기에 주로 채권형 펀드나 ELS 가입고객들이 세금 절약하는 방법으로 선택해볼 수 있다.

**체크 2** 이제 은행에서도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취급되던 랩어카운트를 ISA계좌에 한하여 은행에도 문을 열어둬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는 증권회사와 은행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고객 자산관리의 질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체크 3** 일임형ISA, 전문가가 내 계좌를 관리한다

일임형ISA 계약을 가입하면, 은행이 사전에 설정한 투자성향별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은 선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은행은 일임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배분 비율에 맞게 투자금을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해 주는 상품이다. 세제혜택도 부여되며 과학적 자산관리 서비스도 받는 일석이조의 상품이 바로 일임형ISA이다.

## 가입 전략 1-2-3

**1** ELS·DLS 등 비과세 혜택 없던 상품 먼저 가입

ISA 계좌에 1순위로 담아야할 상품은 'ELS(지수연계증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ELS와 DLS(파생결합증권) 등 국내 파생결합상품 시장 규모는 이달에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처럼 ELS·DLS는 '제2의 국민 재테크 수단'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세금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제 ELS·DLS에 배당소득세도 2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ELS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 등 ISA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 가입 가능하다.

**2** 안전 지향 투자자에게 '해외채권형펀드' 추천

ISA 계좌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상품은 기존에도 세금이 없던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해외주식전용 비과세펀드'가 있기에 별도로 ISA계좌에 담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원한다면 '해외채권형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1년 0.07%, 2년 5.41%, 3년 8.52%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펀드는 지난 5년 수익률이 22.85%에 달했다.

**3** 보수적 투자자에게 '예적금' 상품 추천

보수적 투자자라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대이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고객이 연간 200만원 이자수익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40대 은퇴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대비한 사례별 절세 전략과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가정주부인 L씨(40세, 전직 산부인과 전문의)는 지금까지 재테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 가져 본 적이 없다. 노후 준비 등을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파트를 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 봤다. 그동안 아파트를 사고판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아파트는 직장 가까운 곳에 사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다. 당연히 집값은 살다 보면 다른 아파트값 오르는 만큼 오르는 줄 알았다.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다. 물론 오산이었다. 2008년, 직장 가까운 곳에 샀던 분당의 A아파트는 기대와는 달리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 떨어진 상태였다. 분당 지역의 높은 교육열과 거실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멋진 중앙 공원과 떨어지는 집값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 사면 가격이 오른다던데, 나는 돈이 피해가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자신을 반성했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다. 공부는 무슨 공부, 바쁜 일상에 떠밀려 어느새 부동산 같은 것은 뒷전에 미뤄 주고 또 잊고 살았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해 병원 개원을 하면서부터 부쩍 바빠졌다. 집과 병원만을 오가면서 환자들만 챙겼다. 실 새 없이 바쁜 일상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조차 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월급쟁이 의사를 할 때보다 수입은 훨씬 좋아졌지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오는지 너무 잘 알기에 별로 신나지도 않았다. 물론 남편은 다시 태어나도 의사를 하겠다고 할 만큼 환자를 보고 수술하는 것은 좋아한다. 하지만 아무리

**은퇴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출발 시점을 따로 정해 놓고 은퇴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 은퇴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행복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천직으로 여긴 일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이 망가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L씨는 마음이 아팠다. 며칠을 고민하고 궁리했다. 그녀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새벽 2시든 3시든 수시로 병원으로 불려나가며 의사생활에 진저리칠 때 남편 덕분에 해방되었던 것이 새삼 떠올랐다. 이젠 남편이 쉬어 가며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서울러 은퇴준비를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오지를 찾아 그곳의 향기에 취해 보는 것, 그리고 그 향기를 책으로 내는 것이 언젠가의 꿈이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꿈을 꼭 이뤄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산관리 멘토스쿨’에 다니기 전에는 그저 급한 마음에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부터 급히 서두르기보다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은퇴준비를 위해 집을 옮길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 부지런히 종잣돈을 더 모아 수익성 부동산에도 투자할 계획을 세워 뒀다. 그녀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아이패드만 보고도 좋은 땅인지 아닌지 척척 얘기하는 멘토의 모습에 좌절했다. 지런 경지도 안 되면서 뭘 사겠다고 선블리 나섰는지 자신이 한심했다. 이렇게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부동산에 눈을 좀 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당초에 세워 둔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2012년,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려하여 대치동의 M아파트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멘토의 자문에 따라 반포에 있는 A아파트에 투자했다. 어느 정도 알은체는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의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무개념 수준이었다. 투자했던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2억 원 이상 오른 상태다. 아직 멀었지만 은퇴준비의 첫걸음마가 성공적이어서 뿌듯하다. L씨는 또다시 수익성 상가에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종잣돈 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통해 종잣돈 마련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생활비 지출형태를 살펴보고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줄여 나갔다. 예를 들어 음식 재료의 경우, 2주일 한 번씩 장을 봐 냉장고에 쌓아 보니 거의 1/3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려 음식재료 과다

구입으로 인한 낭비를 줄였다. 또한 유행에 민감해 한두 번 사용하고 6개월 이상 방치되는 생활용품의 구매는 지양해 나갔다. 이렇게 그녀는 소비습관을 고쳐 나감으로써 종전보다 15% 정도 더 저축액을 늘려 지금은 소득의 60%까지 저축하며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 아직 수익성 상가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을 향한 노력에 배반당해 본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종잣돈을 모아 가며 상가투자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꿈이 현실이 되는 날 남편과 함께 과감하게 떠날 것이다. 오지로! 그녀는 절대 무거운 것 안 든다. 웬만한 급한 일이 아니면 뛰지도 않는다. 10년 후 남편의 손을 잡고 오지를 여행하려면 무릎과 허리를 아껴야 하니까 말이다. 은퇴준비, 40대 이상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은퇴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출발 시점을 따로 정해 놓고 은퇴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 은퇴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행복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그 과정에 지출관리는 필수다. 대부분 소득이 많아지면 지출도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과 연동시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비습관을 고쳐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종잣돈 만들기의 가장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무용지유용無用之有用’, 즉 ‘쓸모없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것이다’는 말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얘기다. 과소비는 은퇴부자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다. 당신도 은퇴부자가 되려면 일상의 소비행태를 되돌아봐라! 그리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40대의 은퇴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만약 40대에도 은퇴준비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은퇴 뒤에 찾아올 사회적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즉,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비롯해 퇴직금은 먼저 보지도 못한 채 금융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결혼할 때까지 자식들 뒷바라지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위험, 피하고 싶은 황혼 이혼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은퇴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은퇴준비를 철저히 해 놓는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사회적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백신은 단 한 가지뿐이다. 지금 당장 은퇴준비에 착수하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헬스케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산업 세분화로 줄기세포 기술 관심이 커진 상황이고 연초 국내외 주식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펀드의 수요는 꾸준하다.

글. 김민수(뉴스웨이 기자)



불확실성 커진 국내증시,  
**헬스케어로  
care하라**



**지난해 중국발(發) 쇼크로  
국내외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며  
주식형펀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주로 투자하는  
헬스케어 펀드는 연간 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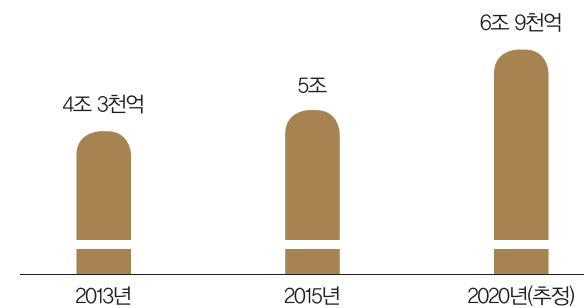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한미약품의 약진이였다. 굵직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맺으면서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연달아 마일스톤 계약을 성공시키면서 2015년 한해에만 7조원이 넘는 메가톤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여기에 실적마저 사상 최대 매출을 시현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30만원 중후반대서 거래됐던 한미약품은 한 달여 만에 8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전인 같은 해 2월 10만원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5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실적 측면에서도 지난해 총 매출액이 1조3175억 원을 기록해 2014년의 7613억 원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18억 원으로 5배 넘게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1200억 원 가까이 확대되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단위: 달러)



**‘잭팟’ 터진 기술 수출, 바이오산업 전반으로 확대**

이 같은 흐름은 제약 및 바이오 관련주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중국발(發) 쇼크로 국내외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며 주식형펀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주로 투자하는 헬스케어 펀드는 연간 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헬스케어 관련 펀드 19개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해당 상품들의 수익률 9.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2.25%)를 기록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KRX헬스케어 지수와 연계돼 움직이는 TIGER헬스케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헬스케어 종목들의 도약과 더불어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탄 이 종목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상승장구했다.

증권전문가들은 헬스케어 관련 상품들의 약진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구성시 기존 전통산업에서 신(新) 성장 동력으로서의 무게중심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新성장동력 ‘부각’**

줄기세포란 어떤 조직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태생기 전능세포를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한 배아 줄기세포와 특정한 주식을 구성하는 성체줄기세포, 신체 어느 곳을 이용해도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성질로

역분화가 가능한 배아줄기세포 등으로 구분된다. 줄기세포 기술은 향후 인류 의학에 있어 질병 치료 뿐 아니라 인간의 세포와 조직, 장기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재생의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인류가 줄기세포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장기 이식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훼손된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및 조직을 다량으로 얻을 수 있어 난치성 질병 치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줄기세포 관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최선두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200개 내외의 줄기세포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대부분 심혈관계나 중추신경계, 면역 및 염증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줄기세포 관련 산업 규모 역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0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은 2014년 500억 달러로 10여년 만에 7배가 넘는 고성장세를 이뤄내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헬스케어 관련 신흥 강자로 떠오른 한국 역시 줄기세포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일찌감치 줄기세포 연구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분류됐다. 정부의 과감한 육성정책이 성장을 촉진했고, 이에 고무된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태가 불거지며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특허출원 및 임상·상업화 부분에서 여전히 세계 최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 들어 정부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기에는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 육성과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한국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미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을 완료했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Invest Fair'도 오는 3월 개최를 확정짓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국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경우 국내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국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나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규제 완화가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경우 국내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모멘텀 여전 “올해도 폭풍성장 지속”**

이처럼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이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2015년이 새로운 시장에 이목을 집중됐던 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초 이후 중국증시 불안과 유가급락,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세계증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된 게 사실이다. 코스피 역시 한 때 1830선까지 밀려나는 등 부침을 거듭하며 올해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도 헬스케어 주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경제 연착륙 우려에도 화장품과 의료, 제약, 서비스 등 신경제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헬스케어의 수혜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투자전문가들은 “2월 코스피 의약품지수와 코스닥 제약지수가 모두 급락했지만 미국 나스닥 바이오지수와 비교하면 국내 헬스케어 업종 수익률이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라며 “업황이 여전히 좋고, 해외에서의 임상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역량도 높아진 만큼 국내 업체들의 장기 투자 매력은 유효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펀드 인기 급증...**

**운용규모 1위는 ‘동부바이오헬스케어펀드’**

이처럼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이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2015년이 새로운 시장에 이목을 집중됐던 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눈여겨 볼 상품 가운데 하나로 동부증권이 내놓은 ‘동부바이오헬스케어펀드’가 첫 손에 꼽힌다. 올해 초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외 증시의 부진 속에서도 국내 헬스케어펀드가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동부바이오헬스케어펀드’는 최근

한 달 새 8.6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최근 1년과 3년 수익률은 각각 50.8%, 71.92%에 달한다. 현재 관련 상품 가운데 최다인 2094억 원이 설정돼 있으며,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시황에 따라 바이오주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이후 담당 펀드매니저 교체 없이 일관된 전략으로 운용되는 한편 확실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을 주로 편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 주식편입 비중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MW)에도 적절히 투자해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1. 운용전략**

Bio-Healthcare 주식에 50% 이상 투자

• Bio-Healthcare의 다양한 부문에 분산투자 실시

시황에 따른 바이오 주식과 비바이오 주식 편입비 적극 조절

• 바이오 강세 시 바이오 편입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 추구  
• 바이오 약세 시 비바이오 편입비중 확대를 통한 시장과의 괴리 축소

Bio-Healthcare 종목선정 기준

• 해외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기업  
• 확실한 Cash cow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  
• Bio-Healthcare 연관 기업에도 폭 넓게 투자  
• CEO나 대주주의 신념과 도덕성

비Bio-Healthcare종목선정 기준

• 당사 성장형 펀드 Top Pick 순으로 편입

**2. 상품개요**

상품유형	공모형, 증권(주식), 추가형, 종류형					
주요 신탁재사유용	주식 : 60% 이상 채권 및 유동성 자산 : 40% 미만					
클래스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H	Class C-W

• Class C는 CDSC(이연판매보수제도)를 적용하여 장기보유에 따라 판매보수가 인하됩니다.(4년간)



# Membership

PB센터 소개와 품격 있고 여유로운 삶의 지혜로운 설계를 돕기 위한 교양 · 문화 · 예술 · 여행 관련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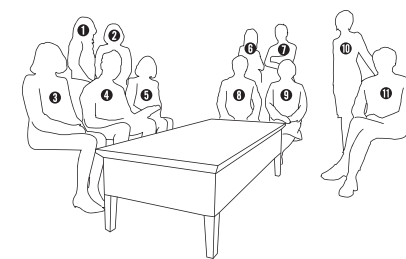
46	PB센터 탐방	기업은행 PB센터 제1호점 강남WM센터
52	재테크 레이더	미술품 감상과 투자
56	문화예술 엿보기	한국화랑협회 <화랑미술제>
58	문화예술여행	이탈리아 마르케(Marche)
62	알뜰생활백서	알뜰한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활용법'
64	건강으로 가는 길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극복법
66	경제 인사이트	신(新)소비 전략, 플랜 Z

특별한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이제 모든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것이 없는 서비스가 됐다. 그러나 기업은행 최초의 PB센터로 그 목직한 의미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강남 WM센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모두가 VIP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할 때 '최고'가 아닌 '진짜'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인력들이 모여 마음을 다한 서비스로 고객들로부터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강남WM센터, 그 뜨거운 현장을 방문해보았다.

글. 이경희 / 사진. 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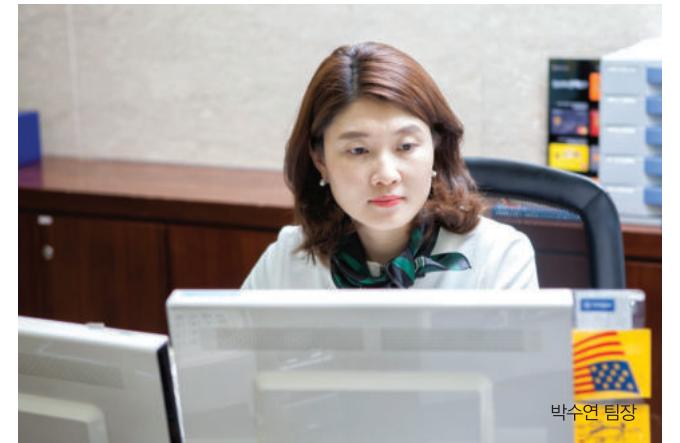
# 친절보다 더 깊은 진정성으로 고객을 사로잡는다

기업은행 PB센터 제1호점  
강남WM센터



- ① 박수연 팀장
- ② 손나연 대리
- ③ 임선미 대리
- ④ 이인선 대리
- ⑤ 백선경 팀장
- ⑥ 이문주 팀장
- ⑦ 이병준 팀장
- ⑧ 전길구 센터장
- ⑨ 김미숙 부센터장
- ⑩ 임세희 팀장
- ⑪ 김광선 투자증권 센터장





**최초의 PB센터, 최고의 WM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WM센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더욱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이다. 그리고 그 아늑함보다 더 와 닿는 것은 유쾌하고 긍정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전길구 센터장과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마음씀이 돋보이는 김미숙 부센터장이다. 두 사람 모두 이 바닥에서 수십년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 특히 전길구 센터장 같은 경우 IBK PB센터의 태동부터 함께 했기에 이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가이다.

“저희 센터는 2009년 9월에 당행 최초의 PB센터로 설립되었고, 2015년 3월에 WM센터로 전환되면서 IBK투자증권이 들어와 증권업무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남WM센터는 국내 PB시장의 치열한 각축장에서 기업은행의 대표 주자로 뛰면서, 은행 PB사업의 첨단에서 최상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하는 사명을 갖고 뛰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라면 고객들이 단순히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높은 학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단순한 자산 상담이나 재테크 서비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응대가 직원들에게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객께서 궁금해 하는, 은행에서 와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테크라든가,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죠. 그러나 자산이 많은 고객들의 특징은 전문가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말까지 할애해가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고객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강남WM센터 직원들이 투자증권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증권 브리핑을 받고 수시로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급들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슈가 될 만한 경제 현상을 공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강남WM센터 직원들이 투자증권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증권 브리핑을 받고 수시로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급들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슈가 될 만한 경제 현상을 공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다**

그렇다면 강남WM센터에서 시행하는, IBK만의 차별화된 특징,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희 WM센터는 고객님의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은행거래를 복수로 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저희와 의논합니다. 이러한 신뢰확보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저희는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해드리고, 취미 동호회가 외부활동을 나갈 때는 차량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WM센터의 자산관리 세미나는 고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무 관련 세미나의 경우, 상속, 증여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세미나 후에는 개별 상담까지 실시해 매년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이 모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에는 김미숙 부센터장, 백선경 PB팀장, 임세희 PB팀장 등이 있습니다. 모두 은행FP,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다수의 자산관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강남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 PB들로서 특히 김미숙 부센터장 같은 경우는 PB경력 14년차로 PB마스터상을 수상한 기업은행 대표 PB이기도 하지요. 증권부문의 김광선 센터장 역시 증권사 입사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PB영업에 매진한 베테랑 증권맨이며 이병준, 이문주 PB팀장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와 상품설계를 통해 거액의 단독 펀드를 이끌어낸 증권전문가들이니 믿고 맡겨주시지요.”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난 2016년, 전길구 센터장의 향후 계획은 흔들림 없이 명확하다. “정량적인 면에서는 3년 내에 자산관리 규모를 5천억 원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져야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WM 센터에 투입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더 많은 자산을 관리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정성적인 면에서는 2년 이내에 고객관리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업데이트가 용이하게 체계를 잡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타은행과 비교해 출발이 빠른 편이 아니었음에도 이토록 무난하게 꾸준히 성장해온 것은 모두 고객 덕분이라고 말하는 강남WM센터. 그 감사함을 초석삼아 보다 더 특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다는 이들의 포부가 더 없이 믿음직하다.

디테일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전길구  
강남WM센터  
센터장

IBK기업은행의 제호 PB센터, 강남WM센터를 이끌고 있는 저의 운영철학은 '공정과 균형' 두 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상품을 파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진정 고객님께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 위기 때마다 큰 교훈을 주었기에 늘 잊지 않고 가려는 저의 소신입니다. 각 은행 PB센터의 각축장인 이곳에서 VIP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을 보는 눈입니다.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일 매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조금 더 해안을 갖게 되고 이 작은 차이가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는지, 군대에 있는지, 제대는 언제인지, 고객이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특정 화가, 특정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객의 소망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은행 PB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객님들 역시 한걸음 더 깊숙이 들어간 관심과 대화에 더 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구요. 고수들의 경쟁에서는 디테일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저는 늘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강남WM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합류한 IBK투자증권과 함께 고객님들을 위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가 '고객의 행복을 창출하는 WM센터'라는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결 같은, 우직한 신뢰와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이 아니라 신뢰를 팝니다



김미숙  
강남WM센터  
부센터장

저희 강남WM센터 고객님들은 경제적인 부와, 지식, 교양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는 분이 대다수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사가 더 조심스러우며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응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고객님의 자산관리 시, 수익률을 높이는 금융상품 권유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즉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증여, 상속에 대한 대비, 재산은 있는데 이를 부동산으로 가야 하나, 금융자산으로 가져가나, 이런 고민에 대해 맞춤형 응대로 고객님의 원하는 컨셉에 맞춰드리는 거지요. 이는 당장 우리 은행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아도 고객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비스로 가는 자연스러운 방향키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중부세 관련 법령이 잘못되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불복을 해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불복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세금이 납부되는 거죠. 저희는 은행 세무사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걸 다시 저희 고객님들에게 불복신청을 하게끔 권유해서 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꼭 은행업무가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희 센터의 서비스가 오랜 기간 좋은 고객님들을 모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크게 영업을 하는 타행 PB센터가 많은 와중에 고객님들께서 느끼는 기업은행 이미지는 타행보다 좋은 편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영업은 하지만 장사꾼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자 하는 마인드는 저희 센터의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즐거운 일터입니다



박수연  
팀장

저는 강남WM센터에서 근무한 지 3년차된 직원으로 감리역 및 창구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부센터장과 함께 고객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VIP고객님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업무를 맡은 만큼 일반 자점 근무와는 다른 자질이 요구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시는 고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억'하려고 해요. 아기를 다루 듯 끊임없는 터치와 스킨십을 지속함으로써 고객님과 꾸준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문을 꼼꼼히 정독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살펴 고객님과의 대화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저희 고객님들의 특성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이슈에도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제 색깔은 버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제게 고객님과의 만남은 일을 떠나서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제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특수한 계층인 고객님들에게는 늘 일어나니 궁금해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옆자리 팀장님의 권유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동시에 성공한 자산가들을 더욱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을 보면 부지런하고 꼼꼼하며, 자기절제가 강하고 스스로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엄격함을 갖고 계세요. 배울 점을 찾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점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목표가 있다면 작년에 증권사가 새롭게 오픈을 하면서 신규 고객이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걸 이어가서 올해도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고 WM사업 쪽을 선도해가는 센터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쉬지 않고 공부해 PB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임선미  
대리

저는 강남WM센터에 발령받은 지 이제 한 달된 막내 직원입니다. 입사한 지는 6년이 됐지만 PB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6개월간 금융연수원에서 해당 교육을 받고 오게 됐어요. 현재는 PB를 보조하는 PBA로 팀장님과 한 팀이 되어 고객관리 및 전산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객님과 친밀함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면 고객님과의 관계도 끝났던 기존 은행의 스타일과 많이 달라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고객님께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금융FP, 외환전문역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곳에 와서는 증권사와 연계된 상품이 많아서 파생상품 상담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업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찍 출근을 해서 보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PB 업무로는 신입이나 마찬가지로인 상황에서 전문지식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고객님보다 아는 게 없는 저를 믿고 상담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텐니까요. 또 이곳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부동산이나 미술, 음악, 이런 쪽으로 매우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저 역시 틈나는 대로 많이 다녀보고 공부해서 고객님과 공통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센터의 막내로서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님들께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장님의 경우 제가 실수를 하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 와서 이 정도로 잘하겠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미술품 감상과 투자

최근 일반인들까지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술 전시를 관람하고 미술시장에서 작품을 구입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제 미술품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비품이 되었고, 새로이 큰돈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투자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활동이 비즈니스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글 · 그림, 서진수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 / 미술시장연구소 소장

### 재테크 빙하기 미술에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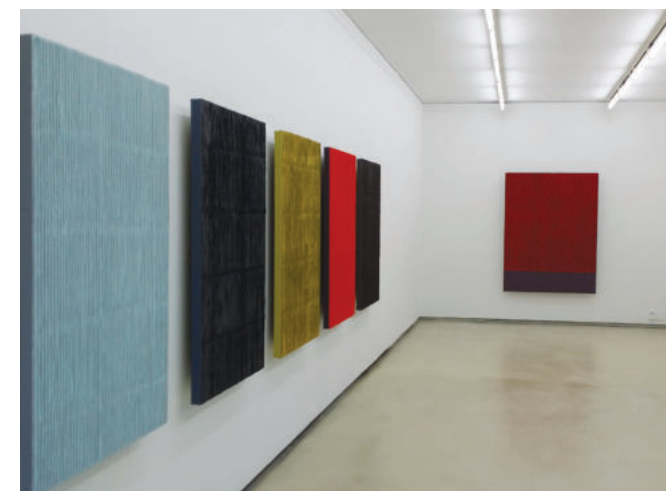
경기가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심이 후한 호경기에는 모두가 열심히 뛰며 세상이 나눠주는 혜택을 받으려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 그러나 돈의 흐름에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유가 없어 불편해지는 불경기에는 많은 사람이 쉬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버티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소득상승과 고임금, 잦은 경기변동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심리공황까지 겹치는 재테크 빙하기에는 금리, 주식, 부동산, 금, 환율 어느 것 하나 투자하기 쉬운 곳이 없다. 지금이 이런 때가 아닌가싶다. 이런 때는 쉬면서 세상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거나, 과거의 역사를 돌아켜보고 또 건강도 확실히 챙겨보는 것이 답일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렵다고 해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응하고 변하며 성장해간다.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알면 기업가로 변신하고, 돈을 열심히 벌던 사람이 문화를 알기

시작하면 문화인 이상으로 문화에 빠져든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경제인이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고, 음악과 미술로 품격을 갖춘 기업가인 유상(儒商)의 수가 늘고 있다. 20세기에 삼성을 일군 호암 이병철 회장과 보화각, 보성학원을 설립한 간송 전형필 선생에 이어 21세기에도 삼성과 리움미술관을 경영하는 이진희·홍라희,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서경배, 아라리오와 아라리오뮤지엄의 김창일 등 많은 기업인들이 세계 유수의 미술품 수집가이자 멋있는 회장님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이외의 기업인과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까지 미술 전시를 관람하고 미술시장에서 작품을 구입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제 미술품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비품이 되었고, 새로이 큰돈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투자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 활동이 비즈니스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결과

2006~7년의 미술시장 호황기 때 미술시장에 진입했던 단기 투자파들은 많이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소비와 투자를 위해 미술시장을 찾는 사람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침체를 겪은 최근 6~7년 사이에 꾸준히 미술품을 구입하여 100억 원대의 규모까지 키운 컬렉터도 생겼다.

### 블루칩 작가와 트렌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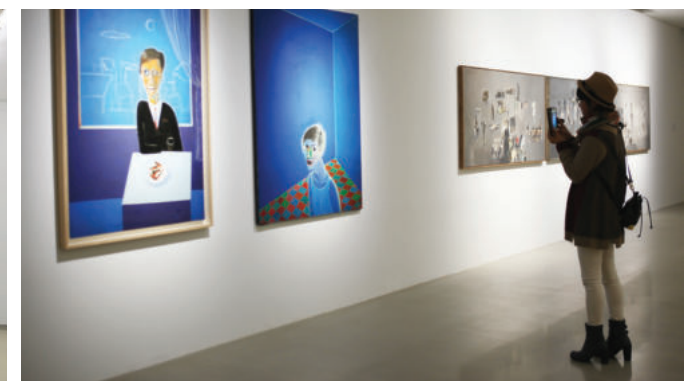
2006~7년 미술시장 호황기에 큰 수익을 본 사람 중에는 이미 15~20년 전에 미술품을 구입해 온 컬렉터들이 많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는 김환기, 이우환, 그리고 정상화, 박서보, 윤형근, 하종현 등 단색화 작가의 작품가격 상승으로 짧게는 3~4년, 길게는 7~8년만에 블루칩 작가의 작품으로 큰 수익을 올린 컬렉터도 적지 않다. 미술시장에도 유행이 있어 1970년대에는 청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 월전 장우성, 운보 김기창 등의 한국화에 투자했던 수집가들이 재미를 보았고, 1980년대에는 이중섭, 도상봉, 장욱진, 박고석, 이인성, 최영림, 박고석, 변중하, 권옥연 등의 서양화와 앞서 언급한 한국화 작가의 작품을 사고 판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렸다. 1990년대에는 박수근, 김환기와 천경자, 박생광 등의 작품이 더해졌고, 2000년대에는 이대원, 김중학, 이우환, 그리고 해외작가의 작품이 더해지면서 미술시장의 파이가 크게 확장되었다. 시대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40여 년의 미술시장도 여러번 변화를 경험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15년이면 세상이 뒤바뀐다. 경제 전체의 변동처럼 미술시장도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작가의 작품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고, 유명했던 작가의 작품 거래가 뜸해져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서 보는 명당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떠올리게 한다. 요즘의 미술시장은 거래방식도 다양해져, 1차 시장인 화랑 전시와 여러 화랑이 대규모로 미술시장을 열어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아트페어, 2차 시장인 경매가 전국에서 일년 내내 열려 미술품 거래가 확산되고 정보가 양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가까운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와 머나먼 미국, 유럽 등에서 열리는 전시, 아트페어, 경매에까지 여행을 하며 작품을 구입하고 미술관 투어까지 즐긴다.

### 화랑 전시와 아트페어

화랑 전시는 사간동, 통의동, 평창동, 강남의 청담동과 신사동, 인사동, 부산과 대구, 천안과 전주, 광주, 인천 등에서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미술전문 잡지와 럭셔리 잡지의 기사와 전문가 평론을 읽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미술관, 미술교육기관, 유명 갤러리의 미술시장 특강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술전문 사이트(daljin.com, neolook.com, k-artmarket.kr 등)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사이트에까지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여러 화랑이 한 곳에 모여 전시비용은 절약하고, 홍보는 대단위로 하는 아트페어가 성행하여 전국적으로 30여 개가 열린다. 시기적으로 보면 3월의 화랑미술제



좌, 조현화랑 박서보 개인전 전경  
우, 아라리오 갤러리 안창홍 전시 전경

(코엑스), 4월의 G-Seoul(DDP), 5월의 서울오픈아트페어(SOAF, 코엑스), 6월의 아트 부산(벡스코), 9월의 어포터블 아트페어(DDP), 10월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ART SEOUL, 코엑스), 11월의 대구아트페어(엑스코) 순으로 개최된다. 아트페어와 화랑에 따라 고가 또는 중저가 작품으로 수요층을 달리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취향, 예산에 따라 적절한 페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트페어는 한꺼번에 많은 화랑과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미술시장과 작품구입 및 투자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미술품 경매시장

미술시장의 현주소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곳은 미술품 경매시장이다. 서울옥션과 K옥션 등의 근현대미술과 고미술 전문 경매회사, 그리고 아이옥션, 마이아트옥션, 에이옥션, 옥션단 등의 고미술 전문 경매회사가 있다. 2015년의 경매회사 전체의 낙찰총액은 1,892억 원에 달하며, 10여 개의 경매회사 중 국내 미술품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품까지 거래하고 있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시장점유율이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가별로 낙찰된

작품의 가격정보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무료로 가입한 후 검색해 볼 수 있다.

2015년 경매시장의 낙찰총액 톱10 국내 작가를 보면 김환기, 정상화, 이우환, 박서보, 박수근, 김창열, 천경자, 윤형근, 하종현, 유영국 순이었다. 그리고 해외작가는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 미국의 루이스 부르조아, 알렉산더 칼더, 로버트 인디아나, 앤디 워홀, 그리고 프랑스의 파블로 피카소 순이었다.

미술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미술전문 잡지에 나와 있는 화랑이나 경매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시와 경매 일정을 찾고, 현장에 가서 관람하고 구매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화랑에서 전시된 작품은 구입 희망순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입구 데스크나 작품 옆 벽에 붙여놓은 가격표에 제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일부 화랑에서는 구매의사가 확실한 고객에게만 가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장과 친해질 때까지는 직접 발로 뛰며 전시를 보고, 화랑 대표와 교류하며 조연도 구하고, 고객 등록을 통해 이메일이나 도록 배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KIAF2015 전경



상. 서울옥션 경매 장면  
하. K옥션 경매장면

경매는 사전에 작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경매 당일 연회비 등 등록과정을 마치고 팻말을 받아 참가한다. 경매회사가 제시한 추정가의 범주를 잘 헤아려 응찰해야 한다. 경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하는 모한 심리작전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관람을 하며 임의로 연습을 하고 익숙해진 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 김환기, 이우환 단색화 작가

미술시장은 개인의 인테리어 장식과 선물, 기업의 미술품 수요, 공공 장식물, 미술관의 작품 구입, 투자를 위한 작품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미술품을 거래한다. 최근에 정보 공개와 국제화로 인해 국내 미술시장과 해외 미술시장의 가격은 연동하여 움직인다.

김환기, 이우환, 박수근, 단색화 작가의 작품은 최근 국내외에서 수요가 급증하여 역대, 또는 10억 원을 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매시장의 선도 작가를 보면 2006년까지는 국민화가로 불리는 박수근이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일본 모노하의 이론적 지지자 리더로 활동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우환,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일본 유학과, 국내, 프랑스, 미국에서 활동한 김환기이다. 최근의 미술품 수급 경향은 작가의 글로벌 정도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국내 유수의 화랑들이 홍콩과 유럽, 미국 등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2015년부터 서울옥션과 K옥션의 홍콩 진출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통하는 작가에게 투자가 몰리고 있다.

**미술품 투자의 기본은 화랑 전시에서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여 일정 기간 감상과 보유를 하고 그 작가의 인기와 수요가 폭등할 때 경매, 특히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여 가장 큰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 투자의 기본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감상을 통해 지식도 쌓고 미술품과 친숙해지며,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내공을 길러야 한다.**

미술품 투자의 기본은 화랑 전시에서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여 일정 기간 감상과 보유를 하고 그 작가의 인기와 수요가 폭등할 때 경매, 특히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여 가장 큰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품 투자의 기본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감상을 통해 지식도 쌓고 미술품과 친숙해지며,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내공을 길러야 한다. 구매와 감상 모두에서 효용과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작고작가와 해외작가 작품에 대한 양도차익세 부과에 따른 수익성도 계산해야 한다. 저금리와 재테크 빙하기에 국내 투자자들도 미술사적 가치와 인기 작가라는 펀더멘털로 무장한 투자 대상 작가의 스튜디오와 전속 화랑의 문을 두드려 보았으면 한다.

# 제34회 2016 화랑미술제 개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제 34회 '2016 화랑미술제'가 3월 2일 오후 5시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Hall 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는 화랑미술제는 1979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로,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참가화랑이 발굴 지원하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종합미술박람회이다.

총 89개의 한국을 대표하는 화랑이 참여하는 '2016 화랑미술제'에서는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동산방화랑, 박영덕화랑, 샘터화랑, 아라리오갤러리, 이화익갤러리, 표갤러리, 학교재 등 국내외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갤러리들의 2016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컬렉션들을 감상할 수 있다. 각 갤러리의 대표 중견작가들은 물론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의 다채로운 미술작품들을 통해 화랑미술제 참여 관람객들은 한국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전시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색화의 대표작품들이 대거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이우환, 김기린, 김환기, 박서보, 윤형근, 이강소, 이배, 정상화, 하중현 등의 전기, 후기 단색화 작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강요배, 손상기, 신학철, 안창홍, 오윤, 윤석남, 임옥상 등 단색화의 후속 주자로 한국미술의 세계화 계보를 이어 갈 민중미술의 대표작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세계적 관심의 한 가운데 있는 한국의 주요작가와 대표 작품들은 전문 컬렉터와 VIP는 물론 일반관람객들에게 즐거운 감상의 자리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문화 및 미술업계와의 협업으로 문화예술상생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2016 화랑미술제가, 조금은 특별한 그림 한 점을 소개하는 테마로 온/오프라인 특별전을 마련한다. 국내 선두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기반으로 2016화랑미술제의 참가화랑들의 신진작가들을 지원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 미술애호가뿐 아니라 아직 미술품 소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고, 편안하게 작품을 소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참가화랑들이 직접 선별한 신진작가들의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대의 작품을 출품을 받아 온/오프라인 연계전시 및 판매를 진행한다. 관람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생활 속 친근한 미술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며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화랑미술제는 올해도 새로움을 표상하는 3월, 미술애호가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두민, Enjoy the Moment, 2015, Oil on canvas, 60×120cm



라오미, 봄은 버드나무와 사귀다, 2014, 순지에 분채, 97×135cm



문성식, 물의 조각, Pastel on paper, 각 75.5×45cm



우국원, Coffee and Daughter, 2014, Oil on canvas, 181.8×227.3cm



2016 화랑미술제 행사개요	
행사명	제34회 2016 화랑미술제 / The 34th Korea Galleries ArtFair 2016
장소	Hall C, COEX
주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주)코엑스
주관	화랑미술제 운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미술협회
전시일정	VIP오프닝 : 2016. 3. 3(목) 오후 5시
관람 시간	2016. 3. 4(금) ~ 3. 5(토)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2016. 3. 6(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참가화랑	89개 (사)한국화랑협회 정회원 화랑
참가작가	국내외 500여명
작품수	3,200여 점
입장료	성인 10,000원 / 학생 8,000원 (단체 20 이상 1,000원 할인)
홈페이지	www.artkorea.info

## 당신이 몰랐던 이탈리아 마르케(Marche), 우리가 진정으로 즐겨야 할 이탈리아

이탈리아 중북부에 자리한 마르케. 부드러운 곡선의 언덕과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아드리아해를 만날 수 있는 곳.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와인을 즐기며 라파엘로와 로시니를 탐했다.

글 · 사진 최갑수(여행작가)



마르케는 이탈리아 중북부 동해안에 자리한 주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쯤 된다. 아드리아해와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르케에 별장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인들도 많다.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온화한 곡선의 구릉지대. 그 위를 느릿느릿 흘러가는 구름그림자. 이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절로 순해지고 느긋해진다.

### 르네상스 미술의 걸작

마르케에 우르비노라는 도시가 있다. 주도인 안코나보다 더 유명하다. 우르비노가 유명한 이유는 화가 라파엘로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그는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양식이 유행하기까지 3세기 이상 서구 회화의 지존의 자리를 지킨 인물. 1483년 이곳에서 태어났다. 우르비노에서 미술 수업을 받던 라파엘로는 궁정화가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자 1504년, 피렌체에 입성한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에게 작은 도시 우르비노는 우물처럼 좁았고 그는 우물 속 개구리로 살기 싫은 야망에 찬 젊은이였다. 당시 피렌체에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라는 두 거장이 버티고 있었다. 운이 좋았을까. 로마 베드로 성당의 건축가였던 브라만테의 추천으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집무실을 꾸밀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는 유명한 '아테네의 학당'이라는 프레스코화를 그리게 된다. '아테네의 학당'은 웅장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명망 있는 철학자들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우르비노 시내에는 14세기에 지어진 라파엘로 생가(Casa di Raffaello)도

있다. 중정을 품은 3층 짜리 저택에는 생전에 그가 사용하던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화구를 놓곤 했던 자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물론 이곳에는 라파엘로의 흉상도 있는데, 그 앞에 선 한 여인이 오분 쯤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우르비노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성기를 이룩한 도시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1998년 우르비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아마도 중세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우르비노의 전성기를 이룩한 주인공은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Federico da Montefeltro)다. 이탈리아 최고의 용병으로 활약하던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돈으로 르네상스 초기에 지어진 궁전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두칼레 궁전(Palazzo Ducale)을 지었다. 페데리코는 무식한 용병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였다. 이탈리아 역사는 그를 '성공한 용병 장군'이 아닌 'The Light of Italy'로 기억한다. 그는 궁을 장식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을 초청했고 수많은 화가와 건축가, 공예가, 조각가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했다. 라파엘로를 비롯해 '회화의 군주'로 불리는 티치아노의 작품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걸작 '세니갈리아의 성모' 등 눈부신 '르네상스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궁 밖은 중세의 마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400년을 훌쩍넘은 집들이 지붕을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다. 당대의 천재 화가들이 걸었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며 나는 걸었고 어디선가 청명한 바람이 불어와 어깨를 건드렸다. 그날 저녁 나는 팬츠는 와인 한 병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가 그날 하루 내가 누렸던 사치를 다시 한 번 불러내 함께 음미했다.





### 거리 가득한 오페라의 선율

우르비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페사로(Pesaro)라는 인구가 10만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가 있다. 지중해의 바다를 옆에 앉은 이 다정한 도시는 '세비아의 이발사'를 작곡한 남자 로시니가 태어난 곳이다. 1792년 페사로에서 태어난 그는 6살에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고 14살에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가 첼로와 피아노, 작곡을 체계적으로 배운 곳은 볼로냐 음악학교였는데 지루한 수업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바그너를 기념하는 독일의 바이로이트, 모차르트를 기념하는 잘츠부르크와 함께 한 음악가에게 증정된 축제가 있는 도시가 바로 페사롭니다. 그만큼 로시니에 대한 페사로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죠."

1819년에 설립된 유서깊은 극장인 로시니 극장(Teatro Rossini)의 음악 감독인 안토니오(Antrio)는 매년 8월 열리는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기간에는 전 세계 오페라 마니아들이 이곳 페사로로 몰려든다고 자랑했다. 시내 한 켠에는 1882년 로시니의 유산으로 세운 로시니 음악학교(Conservatorio di Musica)도 있다. 학교를 기웃거리다 어느 피아노실을 엿보게 되었는데, 호기심 어린 낯선 여행자를 발견한 학생은 '세비아의 이발사'의 한 대목을 신나게 연주해 주기도 했다. 마체라타(Macerata)도 흥미로운 곳이다. 스페리스테리오 야외극장(Are na Steristerio)은 원래 스포츠 경기장이었던 곳을 공연장으로 꾸민 곳인데 1921년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가 처음 상영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오페라 공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2년부터는 한여름에 서너 개의 오페라가 공연되는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기 시작했다. 직접 만난 아트디렉터 프란체스코 미첼리(Francesco Mochelli)는 "그동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비롯해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스페리스테리오의 무대에 앞다퉈 올랐으며 자랑한다."

### 여행정보

인천공항에서 로마까지 알이탈리아 항공을 이용해 오사카를 거쳐 갈 수 있다. 안코나 공항에서 약 25분 거리의 산 피에트로(San Pietro)에 호텔 몬테코네로(hotelmonteconero.it)가 자리한다. 12세기 수도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호텔로 재단장한 것으로 고풍스러운 외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아드리아 해의 멋진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예시(Jesi)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피아스트라 수도원(Abbazia Fiadra, www.abbadifiadra.net)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법률을 따르는 수도회. 수도사들은 여전히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절제된 생활을 한다. 수도원은 1800제곱미터에 달하는 자연보호구역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카페, 레스토랑 등과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소풍온 듯 수도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아스콜리 피체노(Ascoli Piceno)는 로마보다 오래된 도시다. 아링고(Arringo) 광장의 산 에미디오(San Emidio) 대성당 안에는 르네상스 화가 카를로 클리벨리의 폴립티크화가 있으며 바로 옆에 위치한 시청 내부에도 시립 미술관이 있다. 시티 사이팅 열차 '아스콜리 익스플로러'를 타보자. 도시의 명소들을 손쉽게 돌아볼 수 있다.



### 맛있는 음식과 향긋한 와인

이탈리아 여느 지역이 자랑할 만한 와인을 가지고 있듯 마르케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유명한 와인은 예시(Jesi)라는 중세 도시에서 맛 볼 수 있는 베르디키오(Verdicchio). 베르디키오는 '푸르다'는 뜻의 '베르데'에서 비롯됐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포도에는 푸른빛이 돈다. 와인잔을 코 끝에 대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상쾌하면서도 분명한 신맛을 가진 향이 파고 들어 미간을 살짝 찡그리게 만들었다. "베르디키오는 숙성력이 탁월합니다. 빈티지가 좋지만 하면 10년은 느긋하게 묵힐 수 있죠. 잘 숙성된 베르디키오에서는 농익은 사과향이 난답니다. 양조장에 따라서는 포도를 늦게 수확하기도 하는데 이는 산도를 낮추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시음해 본 베르디키오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였다. 깊은 맛은 없었지만 아주 상큼하고 향기로웠다. 금방 빚어 내놓은 것 같았는데, 아몬드 향이 나는 것도 같았고 여름의 씩씩로운 풀향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스콜라나 올리브(Olive Ascolana) 튀김도 마르케의 대표음식이다. 올리브를 튀겨낸 단순한 요리인데, 올리브 씨를 빼고 그 안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가슴살, 채소, 토마토, 육두구 같은 것을 버무린 소를 채우고 얇은 튀김옷을 입혀 튀긴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병사들이 즐겨 먹은 음식으로 짭조름함 맛과 고소한 기름맛이 어울려 중독성을 불러 일으킨다. 물론 맥주나 와인과 함께 먹어야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알뜰한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 활용법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정기휴가다.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국내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데다, 현지 사정에 어두워 불필요한 지출을 할 위험이 크다. 이때 환율 차익을 이용하면 같은 경비로 더 가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다.

글. 우용표(재무설계 전문가)



## 일본 여행 | 엔화가 비싸져서 아쉬울 따름

작년말 1엔당 1000원을 넘지 않았었는데 엔화 가치가 높아진 건지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인지 이제는 1엔당 1100원에 가깝게 주어야 한다. 불과 2개월 지나지 않아 10% 가까이 엔화가 비싸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년 말에 비해 지금 일본에 간다면 10%의 추가 요금(?)을 내게 된 셈이다. 환율이 알아서 부가세를 견여주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보자. 일본에서 료칸을 이용하고 라멘을 먹었을 때 1만 엔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이면 1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제는 11만원이 들게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힘이 세면 좋을텐데 아쉬울 따름이다. 요새 일본 경제도 안 좋고 금리도 마이너스라서 엔화환율이 떨어지면 좋으려면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아쉬울 따름이다.



### 재테크 Tip

현지에서는 가급적 신용카드 대신 엔화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당시의 환율이 아닌 결제일로부터 3~4일 후의 환율이 적용된다. 엔화 가치가 상승세임을 감안했을 때, 카드 결제를 하면 원래 사용한 금액보다 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엔화는 충분히 가져가도록 하자. 엔화 환율이 오르는 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환율로 인한 이익(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문치를 잘 관리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미국 여행 | 무한상승중인 달러화 가치

1달러는 1,233원쯤 한다(2월 22일 기준). 그런데 작년 말에는 1,144원이었던 적도 있었다. 1달러 당 100원 조금 안되게 비싸진 셈이다. 나아가 앞으로 달러 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돈을 마구 뿌려대려고 준비완료 했기 때문이다.(물건이 흔해지면 값이 싸진다. 화폐라고 예외는 아니다.)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수준에서 움직이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 된다. 이왕 미국에 가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할지도 모른다.



### 재테크 Tip

미국 여행 시에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환전해가고, 현지에서는 가급적 달러로 결제하자. 뒤늦게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시간이 갈수록 환율이 올라 더 손해를 보게 된다.



## 유럽 여행 | 복불복이다

유럽이 시끄럽다. 주도적으로 전세계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행시키고 있는 동시에 수많은 난민들의 유입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초겨울 1유로에 1,219원(11/23일)이었는데 2월 중반에는 1,369원까지 치솟기도 했다.(미국 달러화도 100원 이상 오르지 않는 데 말이다.) 클래스는 영원한 것일까. 전세계를 호령하던 유럽답게 환율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경제 문제(?)들 때문에 환율의 힘도 약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중에 유로화는 앞으로 계속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 복불복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신용카드와 현지화 환전을 복불복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 중국 및 동남아 여행 | 환율보다는 흥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은 바로 바가지요금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서 바가지를 쓸 확률이 높다. (특히 남성들은 주의할지이다. 필리핀에 가서 현지 아가씨들을 엄마로 만들고 무책임하게 숨어버리는 남자들이 많아 현지인들의 한국 남자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다.) 환율에 의한 경비 절감보다는 흥정에 의한 경비 절감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처음 현지 상인이 부르는 값에서 1/10을 불러보자. 실상은 1/20이 정가인 경우가 많은데, 과감하게 1/20을 불러서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정가는 이보다 높겠구나' 하고 참고하면 된다. 흥정을 반복하자. 가장 좋은 경비 절감 방법이 될 수 있다.



### 해외여행과 연말정산

해외여행을 통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 사용분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 해외에서 아무리 많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비한 금액으로 처리된다. 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의 추억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보자.



#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불면증 극복법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래 현대인의 수면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어두운 밤에도 늦은 시각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지낼 수 있으니 그 시간에 잠을 줄여 일이나 학업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인간의 평균 수면시간은 짧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나날을 보내게 됐다. 그렇다면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글: 편집실



## 성공을 위해 잠들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수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할 만큼 잠은 매우 중요하다. 잠은 낮에 활동하며 소진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가끔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면의 나날이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쉽게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적정 수면은 얼마나 될까? 연구에 따르면 7시간이 가장 적당하며, 7시간보다 적게 자면 비만, 고혈압,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차를 감안해도 통상적으로 6~8시간을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것이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에서는 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된다. 예전에는 많은 입시생들이 삼당사락(三堂四落: 3시간 자며 공부하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며 공부하면 떨어진다)라는 말을 들으며 잠을 줄이도록 강요받았다. 또 근로자들은 야근으로 업무시간은 늘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학생들의 오전 9시 등교 제도는 아직까지 편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성공을 위해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회다. 어디 그뿐인가? 숙면의 중요에 대해 대중 강연을 펼치는 전문가나 의사들 역시 강연과 진료를 위해 밤을 새우기 일쑤다. 이러한 연유로 OECD에서는 대한민국을 '학업과 일을 위해 잠을 포기한 사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불면증,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경험

수면시간을 억지로 줄여 잠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잠을 더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불면증 때문이다. 불면증은 환자를 진료할 때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질환과 동반돼 나타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인구에서 30~48%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체의 16~21%에 달한다. 불면증은 잠들기가 어려운 것 이외에 자다가 자주 깨거나, 일찍 깨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이 심한 경우 가장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수면제'일 것이다. 수면제를 먹고라도 잠을 푹 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수면제에 의존하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 사이에서 고민스럽다. 분명히 수면제는 남용 및 의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권장된다. 만성적으로 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수면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유무를 관찰해 가며 장기간 처방하기도 한다.

## 수면제, 올바르게 복용하는 법

수면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면제를 복용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면제의 양을 늘린다.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수면제를 몇 시에 복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면제는 잠자기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지침인 동시에 모호한 개념이다. 취침시간은 아침 몇 시에 기상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만약 7시간의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평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12시인 사람이 수면제를 10시에 복용 한다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 때까지 2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착각한다. '나는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이나 지나야 잠이 온다'고, 만약 수면제를 2시간 더 늦게 먹었다면 평균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비슷해지면서 수면제를 먹지마자 잠이 들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할 때에는 최대한 늦게 복용하는 것이 좋고, 좀 더 정확하게는 아침 최종 기상 시간의 7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수면제를 끊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오랜 기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안 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잠을 자지 않으면 언젠가는 잠이 오게 돼 있다. 사람들은 누워만 있는 경우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잠을 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몸이 머리 대신 잠을 잔 것이다. 우리가 쉬기 위해 잠을 잔다는 것에 비춰 보면 누워만 있는 것도 휴식이 된다. 따라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느라 애쓰는 대신 앉아서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당장 오늘 잠을 많이 못자서 내일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날에는 수월하게 잠잘 수 있을 것이다.

잠은 우리 인생에 있어 분명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마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체중을 5kg이나 감량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0.5kg씩 감량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체중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당장 잠을 잘 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금씩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 수면제 없이 불면증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

1.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유지한다.
2. 누워있는 것을 잠자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거실에 앉아 있다.
3.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4. 자는 동안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한다.
5.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앉아서 복식호흡을 한다.

## 신(新) 소비 전략, 플랜 Z

최근 불경기에 대비하는 신(新) 소비 전략으로 플랜 Z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플랜 A라는 최선의 대안과 플랜 B인 차선의 대안을 넘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플랜 Z 전략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플랜 Z 소비 전략은 '적게 쓰지만 만족은 크게' 얻으려는 방식이다.

글. 편집실

### ■ 소비의 구조조정 전략, 플랜 Z

플랜 Z 전략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구사하는 소비의 구조조정 전략이다. 플랜 Z의 소비 구조조정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매 가격은 내리는 동시에 양질의 품질을 추구함으로써 심리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적게 쓰지만 만족은 크게 얻어'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성비 중심의 소비방식이다. 이제 새롭게 변모하는 소비시장에서 가치소비를 넘어선 다양한 플랜 Z 전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 여유가 없어도 살 것은 산다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소비가 주는 심리적 혜택과 만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당장 돈이 없어도 돈 쓰는 '재미'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해나갈 것이다. 플랜 Z 세대의 소비자들은 먼저 'B급 상품'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교환이나 반품, 약간의 스크래치 등이 있는 제품을 손질해 판매하는 '리퍼브' 제품이나 저렴한 '전시품', '샘플' 제품들도 우아한 소비를 원하는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대안들을 이용해 충분한 만족과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 ■ '집'으로의 회귀, 집이 힐링 공간이 되다

사실 플랜 Z는 마지막에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이 스트레스에서 탈출해 정서적 위안을 얻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집'으로 회귀하고 있다. 경쟁사회에 피로감을 느낌 이들이 사회생활에서 성취욕을 불태우기보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집 꾸미기에 열중하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성과 현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던 현대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집'인 것이다.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더욱 근사해질 필요가 있다. 주거 공간에 대한 애착은 곧 '꾸미기'로 이어지고 이렇듯 공들여 꾸민 집에서 사람들은 여가시간을 보내며 혼자서 논다. 이처럼 집은 이제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니치를 찾아내고 구현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억지로 취향을 맞춰야 하는 불편도 없고 비용까지 적게 드는 '집'으로의 회귀는 앞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로 무장해 우아한 플랜 Z 전략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2016』, 미래의창, 2015

# IBK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16.2.현재)

## E V E N T

ISA에 가입한 고객 10,000명에게 IBK기업은행이 통 크게 쏩니다!

- 이벤트 기간 2016. 2. 15(월) ~ 3. 13(일)
- 이벤트 대상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6.4.30일까지 1만원 이상 신규 가입 고객'
- 이벤트 내용 총 10,000명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제공
- 이벤트 추첨
  - 3월 가입자 매주 2,000명씩 총 6,000명
  - 4월 가입자 매주 1,000명씩 총 4,000명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 단,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총 가입기간 5년

의무 가입 기간	3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청년 (15~29세)
	5년	상기 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

※ 의무가입기간은 가입대상 구분에 따라 3년/5년 각각 적용

**납입한도** 5년 간 매년 2,000만원 (최대 1억원)

**편입상품** 예금, 펀드, ELS 등

### 세제혜택

운용순익 25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운용순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상기 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농어민·청년 (15~29세)

※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분리과세

### 기타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 가능
- '18.12.31일까지 상품 가입 가능
- ※ 단 상품내용 및 관련 세제혜택은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변동 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6-332호 (2016.2.17) FL075 게시기간: 2016.3.3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6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 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ibkethics@ibk.co.kr)